

최인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
내용 타당도 분석

200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곽영미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
내용 타당도 분석

최 인 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곽 영 미

인 준 서

곽영미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을 듣기·말하기, 읽기·쓰기, 문법, 어휘의 내용타당도를 분석하였으며, 지난 11년간의 수능시험 문제를 기초로 읽기·쓰기영역의 유형(tasks)과 측정요소(sub-skills)를 구분하여 각각의 유형 및 측정요소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재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듣기 및 말하기 평가에서는 지나치게 느린 속도와 낮은 문제 비율이 타당도를 낮추는 요인이었으며, 말하기를 간접적으로 평가한다는 점도 타당도를 재고하게 했다.

읽기 및 쓰기평가에서는 내용타당도가 낮은 유형과 측정요소, 선택지의 질적인 문제, 지시문과 선택지의 언어문제, 한정된 소재가 내용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쓰기 평가에서도 역시 수험자의 쓰기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이 내용 타당도를 낮추는 요인 중 하나였다.

문법평가에 있어서는 의사소통의 기능을 위한 문법이 아니라 지나치게 문법만을 위한 문법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내용 타당도가 떨어졌다.

어휘력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유형이 ‘사전뜻풀이 유형’ 1가지로 고정되어 수험자가 수험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내용 타당도를 재고하게 한다.

따라서 수능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타당한 시험 유형 및 측정요소의 개발, 선택지의 질적인 문제 향상, 듣기·말하기 평가 문항 비율 확대 및 속도를 향상시키고 말하기 및 쓰기평가에 대한 새로운 시험 도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방법 및 제한점 -----	3
3. 선행연구 -----	4
II. 테스트의 이론적 배경 -----	6
1. 신뢰도 -----	6
2. 타당도 -----	6
3. 평가의 역류(backwash) 효과 -----	8
4. Test의 종류 -----	9
III. 수능의 내용 타당도 -----	11
1. 수학능력 시험의 성격 -----	11
2. 듣기·말하기 분석 -----	12
1) 듣기·말하기 속도분석 -----	12
2) 듣기·말하기 문항비율 분석 -----	15
3) 듣기·말하기 문제형식 -----	16
4) 듣기·말하기 측정요소 분석 -----	17
5) 듣기·말하기 상황(situations), 기능(functions)분석 -----	19
3. 독해(읽기·쓰기) 분석 -----	22
1) 독해 문항비율 분석 -----	22
2) 독해 문제 유형 및 측정요소 분석 -----	24
3) 독해 소재(topic) 분석 -----	69
4. 어휘분석 -----	72
5. 문법분석 -----	73

1) 문법유형 -----	74
6. 난이도 분석 -----	77
1) 구어체 난이도 분석 -----	78
2) 문어체 난이도 분석 -----	79
IV. 수능의 긍정적 평가 -----	81
V. 결론 및 제언 -----	85
참고문헌	
Abstract (영문초록)	

표 목차

<표 1> 듣기·말하기 속도 분석 -----	13
<표 2> 듣기·말하기 문제 비율 분석 -----	15
<표 3> 듣기·말하기 측정요소 분석 -----	18
<표 4> 듣기·말하기 상황(situations) 분석 -----	20
<표 5> 듣기·말하기 기능(functions) 분석 -----	21
<표 6> 독해 문항비율 분석 -----	23
<표 7> 독해 문제 유형 비율 -----	26
<표 8> 독해 유형별 측정요소 분석 -----	27
<표 9> 독해 첫 부분에 빈칸을 제시한 문제-----	36
<표 10> 독해 소재(topic) 분석 -----	71
<표 11> 문법 항목 분석 -----	74
<표 12> 구어체 난이도 분석 -----	79
<표 13> 문어체 난이도 분석 -----	80
<표 14> 통합형 문항 -----	8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서술한 대학수학능력 시험(이하 수능)의 성격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의 성격

외국어(영어) 영역 시험은 대학 수학에 필요한 영어 사용능력을 측정하며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 명시된 영어교육 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 i) 실생활에 사용되는 영어대화나 담화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
- ii) 다양한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
- iii) 대화나 담화 또는 단락의 세부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
- iv) 문맥에 맞는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
- v) 글의 구조 이해 및 요약능력 등을 측정함으로써 쓰기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
- vi) 언어 지식보다는 언어 사용 능력을 중시하는 평가
- vii) 의사소통 기능 중심의 유창성을 측정하는 평가

2) 평가목표

외국어(영어) 영역의 평가 목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에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한 어휘 및 문법성 판단력, 사실적 이해력, 추론적 이해력, 종합적 이해력, 적용력을 측정하는 데 있다.

수능시험의 평가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의 목표와 일치해야한다. 교육부는 1993년 개정된 제 6차 영어 교육과정부터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과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2005년부터는 제 7차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는 수능을 치르게 되지만, 7차 교육과정도 기본적인 틀은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과정의 특징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1994년부터 11년 동안 12차례에 걸쳐서 실시해온 수능 외국어 영역의 평가가 과연 의사소통에 중심을 둔 제6차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와 일치하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

우리나라의 수능은 의사소통을 위한 표현능력보다는 이해능력을 위주로 평가함으로써 언어의 기능을 편중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수능시험은 이미 학교 수업에서조차 학생의 영어능력 신장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문제를 푸는 기술에만 연연하게 해 Hughes(1989)가 제시한 것처럼 교육과정에 부정적인 역류효과(washback effect)를 가져오게 했다. 이러한 역류효과를 없애기 위해서는 수능이라는 평가절차가 교육과정의 목표와 반드시 일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어느 대학에 입학하는가는 사회적인 성공과 많은 관련을 보여 왔으며, 수능이 실시된 이래로 대학입학의 가장 큰 열쇠는 수능 점수가 쥐고 있었다. 따라서 수능은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교육목적에 맞게 수험자를 측정하여야 하며, 그 시험은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수능 외국어 영역은 내용 타당도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내용 타당도를 재고하게 만든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학습이 있으면 평가도 있기 마련이다. 학습에 따른 평가결과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결과를 평가 할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자신의 교수방법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또한 교사 자신이 한 수업에 대한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더 나은 강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즉 평가의 역류효과(washback effect)를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평가 방법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능의 외국어영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재고하여 앞으로의 수능 출제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 하겠다.

2. 연구방법 및 제한점

본 논문에서는 최인철의 논문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개발 모델’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수능의 각 영역별 내용 타당도를 살펴보겠다.

타당한 시험을 출제하기 위해서는 출제 시 고려해야할 필수조건이 있다.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최인철, 1993).

- i) 청해시험: 세부 능력요소, 시험유형, 내용(의사소통상황, 기능 및 의미)
- ii) 어휘시험: 문맥(context), 시험유형, 격식(formality), 난이도
- iii) 문법시험: 문맥, 시험유형, 격식, 난이도
- iv) 독해시험: 세부능력요소, 시험유형, 내용(주제), 난이도

하지만 수능의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위의 모든 사항을 다루면 너무 광범위한 논문이 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내용타당도만을 분석하겠다.

수능의 내용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각 영역별로 살펴볼 사항은 다음과 같다.

- i) 듣기·말하기: 속도분석, 측정요소 분석, 기능(functions)분석, 상황(situations) 분석, 난이도 분석
- ii) 독해: 유형분석, 측정요소 분석, 소재(topics)분석, 난이도 분석
- iii) 어휘 분석: 유형분석, 난이도 분석
- iv) 문법: 문법항목 분석, 유형분석

지난 11년간 어휘 문제는 총 5문제가 출제되었다. 어휘의 타당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난이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5문제의 난이도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어휘 분석은 구어체와 문어체 영역으로 나누어서 각 영역에서 쓰인 어휘를 바탕으로 난이도를 분석하겠다.

3. 선행연구

수능시험의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은 상당히 많았으나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다룬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수능의 개선에 관한 논문을 많이 참고하였다. 그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에 관하여(허준 외, 2004), 외국어(영어) 영역의 주요국 대학입학시험 문제 비교 연구(전병만, 2002), 통합적 사고능력 향상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평가문항 개발(강동기, 2002),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듣기평가의 의미와 영어교육에 대한 영향분석(이호재, 2001), 대학수학능력시험(영어)의 문항 분석 연구(이산호, 1998), 성취시험으로서의 수학능력시험(정호영, 1998),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의 청해시험 유형 및 발음속도가 시험결과에 미치는 영향(최준, 1997), 1994~9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 결과 분석비교(김상길, 1996), 고등학교 영어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이은경, 1995), 영어과 교육과정에 부합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방향(차광순, 1995), 9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구(국립평가연구원, 1995),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출제 방향 및 방법의 개선 연구(전병만 외, 1995), 9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문제 분석연구(국립평가연구원, 1994)에 관한 논문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위에 열거한 논문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요행이나 추측에 의해 정답을 고르지 못하도록 평가내용의 타당성을 높여야한다. 둘째, 지문과 오답지를

제작하는데 신중을 기해야한다. 셋째, 영어의 정확성 보다는 유창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언의의 4대 기능을 균형 있게 적절히 평가해야한다. 다섯째, 듣기 및 말하기 평가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논문이 당해연도의 시험을 위주로 분석을 하였으며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은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왜 낮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능이 처음으로 도입된 1994년(2차례 실시)부터 2004년까지의 대입 수능시험 외국어 영역의 모든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또한 지금까지의 논문 중 독해평가 분석에서 많은 논문이 ‘유형(tasks)과 ‘측정요소(sub-skills)’를 혼동하고 있으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즉 ‘측정요소’를 마치 유형인 것처럼 취급을 하고 있다. 한 예로 정길정(2003)은 그의 논문 대입 수능 독해평가 문제의 담화구조 유형분석에서 문제유형별 출제문항 분석표를 제시하였는데, 유형과 측정요소를 혼합하여 두개의 개념 모두를 문제유형으로 보고 있다. 전병만(2002), 정호영(1998), 이은경(1995)도 마찬가지로 유형과 측정요소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시중에 나와 있는 수능에 관련된 상업용 교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유형은 문제의 형태를 뜻하는 것이고 측정요소는 측정하고자 하는 기술을 뜻하므로 이 두개의 개념은 분리되어서 분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읽기 영역에 대한 문제를 유형과 측정요소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II. 테스트의 이론적 배경

좋은 테스트는 실시가능성(Practicality), 신뢰성(Reliability), 타당성(Validity)을 갖추어야 한다(Brown, 2001). 즉 한정된 재정과 시간, 관리, 채점, 해설의 면에서 실용적이어야 하고(Practicality), 일관성이 있으며 믿을 수 있는 테스트이어야 하며(Reliability). 측정하고자 한 것을 실제로 측정한 것이어야 한다(Validity).

1. 신뢰도

신뢰도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는가의 문제이다. 만약 한 검사도구가 측정할 때마다 같은 점수를 얻었다면 그 검사도구는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2. 타당도

타당도는 검사 도구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 검사도구의 목적의 적합성에 해당된다. 즉 검사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충실히 측정하였는가의 문제이다(성태제, 2002)

Gronlund와 Linn(1990)에 따르면 타당도를 이해하는 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타당도는 검사자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검사 결과의 해석에 대한 적합성이다.

둘째, 타당도는 정도의 문제이므로 ‘있다’, ‘없다’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낮다’, ‘높다’로 표현해야한다.

셋째, 어느 한 검사는 모든 목적에 부합될 수 없으므로, 이 검사도구는 ‘무엇을 측정하는데 타당하다’라고 말해야 한다.

넷째, 타당도는 단일한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개념을 다양하게 구분하기 보다는 단일한 개념으로 봐야 한다.

수험자의 외국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능은 믿을만한 측정도구 이어야 하며, 각 언어 능력(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을 측정할 때는 타당한 검사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험자의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실제 말하기 검사도구로 측정해야 타당한 검사 도구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신뢰도와 타당도가 현저히 낮은 측정도구로 수험자의 능력을 평가한다면 그 평가는 수험자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여 측정도구로서의 가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수험자의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능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수능 외국어영역의 내용타당도에 대한 연구이므로 타당도의 종류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다.

1)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

내용타당도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영역의 표본추출의 정도를 의미(최인철, 1993)하며 시험의 내용만을 검증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제2외국어의 말하기 능력을 평가할 때 듣기평가나 문법성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로 간접 평가하는 것은 내용타당도가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학습자에게 말하기를 요구하는 테스트는 내용 타당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2) 기준참조 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

기준참조 타당도란 검사도구의 측정결과가 준거가 되는 다른 측정결과와 어

는 정도 일치하는가와 관련된 것이며 공인타당도(Concurrent Validity)와 예언 타당도(Predictive Validity)로 나뉜다(Arthur Hughes, 2003) 공인 타당도는 준거로 삼는 검사의 점수가 현재시점과 관련된 것이며, 예언타당도는 미래의 측정결과와 연관되는 것으로 시간이 지나도 검사결과가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 미래의 행동을 얼마나 잘 예언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3)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

구인타당도는 한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타당하게 측정하였는가를 평가하는 타당도 검증의 궁극적인 목표이다(최인철, 1993).

Bachman의 시험방식 양상에 따르면 구인타당도 검증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Testing environment - 시험환경
- ② Test rubric - 시험구성요소
- ③ Nature of the input that the test taker receives - 시험문제 내용에 관한 특성
- ④ Nature of the expected responses to that input - 기대되는 수험자의 응답 특성
- ⑤ Relationship between input and response - 시험문제 내용과 수험자 응답의 관계

3. 평가의 역류효과(wasgback effect)

평가의 역류효과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뜻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의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만약 교육과정의 교육목표는

의사소통능력 향상인데 평가는 선다형 시험으로 이루어졌을 때, 학생들은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활동을 무시하고 선다형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노력만을 기울일 때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평가절차와 교육과정의 목표와 일치한다면 그 평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4. Test의 종류

언어교육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테스트의 종류는 다음의 5가지이다 (Brown, 2001).

1) 능숙도 테스트 (proficiency test)

능숙도 테스트는 능숙도를 시험하는 것으로, 선다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TOEFL은 이 테스트의 대표적인 예로 ETS에서 주관하는 영어능력 시험이다.

2) 진단 테스트 (diagnostic test)

진단 테스트는 언어의 특정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해줄 수 있다.

3) 배치 테스트 (placement test)

배치 테스트의 목적은 학생을 언어교육과정이나 학교에 배치할 때 적절한 수준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 성취도 테스트 (achievement test)

특정기간의 교육이 끝나고 그 교육의 목적에 대한 습득여부를 판단할 때 쓰는 도구는 성취도 테스트이다.

5) 적성검사 테스트 (aptitude test)

어떤 사람이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나 외국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적성검사 테스트이다.

Ⅲ. 수능의 내용타당도

1. 수학능력 시험의 성격

수학능력 시험은 능숙도 테스트(proficiency test)로써험자의 영어에 대한 능력을 선다형 문항(multiple choice items)을 통해 측정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시험에서도 채점이 용이하며, 채점자의 주관의 개입될 소지가 적어 신뢰도가 높다. 하지만 채점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모든 문제가 선다형 문항이어서 테스트 형태(format)가 다양하지 못하며, 수험자의 능력을 다양하게 측정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수능에서 취하고 있는 평가 방법을 살펴보면 듣기평가는 원어민이 말하는 것을 듣고 수험자가 원어민이 말하는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하거나 추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특정하고 있다. 말하기 평가는 수험자가 녹음된 원어민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고르기, 마무리하는 말 찾기, 상황에 적절한 말 고르기를 통해 평가하고 있다.

쓰기평가의 경우 대규모 시험이라는 수능의 특성상 쓰기평가도 선다형 문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문장의 순서 배열이나, 삽입, 제거 유형을 통해 쓰기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읽기평가는 대학에서 전문서적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지문을 통해 수험자의 지문이해 능력을 측정하고 있으며, 문법성 판단 문제를 통해 수험자가 정확한 문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휘평가는 수험자가 사전적인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어휘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2. 듣기·말하기 분석

청해 능력에는 기능별로 미시적 청해능력(micro-listening)과 거시적 청해능력(macro-listening)이 있다(Rivers, Wilga and Mary Temperly, 1978). 미시적 청해능력은 청해 능력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사실적인 내용파악을 위한 기초적인 듣기능력을 말하며, 거시적 청해능력은 전체적인 내용파악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청해 능력을 보는 것이다.

듣기평가의 목적은 기초적인 사실적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듣기 능력을 파악하는 데 있다. 더 나아가서는 수험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듣기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시적 청해능력에 있으므로, 미시적 청해능력 뿐만 아니라 거시적 청해능력도 측정되어야 한다.

수학능력시험은 97년도부터 듣기평가의 문항 수가 17문제로 늘어남에 따라 17문제 중 5문제를 ‘말하기’ 부문으로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말하기 평가에 큰 의미는 없다. 이는 실제 말하는 모습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듣고 그에 맞는 문장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듣기평가와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말하기 평가를 통해서 수험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능 외국어 영역의 말하기 평가는 내용타당도에 크게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듣기 평가와 말하기 평가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분석을 하겠다.

1) 듣기·말하기 속도분석

듣기평가 대본의 말하기 속도(rate of speech)를 분석하기 위해 실제로 말하는 순수 내용으로만 편집 한 후 한글 프로그램의 문서정보를 통하여 단어 수를 먼저 측정하였다. 그리고 매 문항마다 running time을 일일이 측정하여 분

당 몇 단어를 말 하는지 계산하였다. 여기에서 전화대화에서의 벨 소리는 running time 측정에서 제외하고 순수하게 말하는 시간만 측정하였다.

각 년도별 듣기평가의 단어 수, running time, 속도는 다음과 같다.

<표 1> 듣기·말하기 속도

년도	94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항목	1차	2차										
단어 수	358	373	346	638	1,099	1,090	1,439	1,129	1,285	1,482	1,648	1,699
Running Time (sec)	144	146	163	249	374	461	557	490	550	629	666	657
Rate of Speech (wpm)	149.17	153.29	127.36	153.73	176.31	141.87	155.01	138.24	140.18	141.37	148.47	155.16

최근 TOEIC과 TOEFL의 듣기평가에서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수학 능력시험 듣기평가의 말하기 속도는 최근에 빨라지고 있는 추세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본 2004년(155.34 wpm -words per minute)만 보아도 굉장히 느린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듣기평가의 속도는 11년에 걸쳐 속도의 증가와 감소를 겪었다. 가장 느렸던 시기는 1995년으로 127.36 wpm이며,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인 시기는 1997년으로 176.31 wpm 이었다. 이는 무려 48.95 wpm의 차이를 보였다. 1997년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이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되어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듣기 중심의 초등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에 큰 변화가 있었던 한 해(허준 외, 2004)로 이 시기에 듣기평가의 속도도 가장 원어민의 발화속도에 가까웠으나, 1997년 이후의 듣기평가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수능의 듣기평가는 원어민의 자연스러운 발화속

도에 가깝게 녹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학능력시험을 가장 처음 실시하였던 1994년(149.17 words/min)과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04년(155.34 wpm)의 말하기 속도를 비교해보아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말하기 속도를 측정하기 전에는 지난 11년간의 외국어 영역의 듣기시험에 큰 속도의 차이가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대입시험에서 1994년에 처음으로 듣기시험을 도입하였고, 도입한지 1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말하기 속도가 빨라졌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석결과 1994년과 2004년을 비교해 보면 이렇다할 큰 변화는 찾아볼 수 없었다.

원어민의 말하기 속도는 평균 분당 160~190 단어(Rivers, 1980)이며, 뉴스에서는 평균 분당 200단어(최인철, 2002)를 말한다. 이에 비해 수능의 듣기평가에서 평균 말하기 속도는 148.48 wpm이다. 발음 속도가 너무 느려지면 듣기평가의 문제는 쉬어지며, 그만큼 변별력도 떨어져서 수험자의 듣기능력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내용 타당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결국 느린 듣기속도에 익숙해진 수험자는 영어 대화를 듣고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또한 듣기는 언어능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 듣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말하기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수능 외국어 영역의 최종 목표는 의사소통능력 이므로 점진적으로 속도를 늘여서 결국은 원어민의 실제 말하기 속도와 가깝게 녹음하여 학생들의 듣기능력을 평가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04년의 속도(155.16 wpm)보다 약 4.84~34.84 wpm으로 늘여서 원어민의 실제 말하기 속도와 비슷하게 만든 후 수험자의 듣기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능의 듣기·말하기 문제에는 빠른 발음(sandhi) 현상을 찾아 볼 수 없어서 듣기·말하기에 대한 측정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지 못하다.

빠른 발음(sandhi) 현상이란 일상생활의 언어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빠

른 발음 현상으로 원어민이 정상속도로 발음하는 것을 제대로 청취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하는 것이다(최인철, 2002).

미식 발음(American pronunciation)을 배우는 추세에 따라 수험자가 빠른 발음(sandhi) 현상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빠른 발음(sandhi) 현상의 분석결과 말하는 속도를 지나치게 느리게 해서 이 현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진 발음이 많았다.

수능의 듣기평가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며 듣기능력의 향상은 말하기 능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므로, 원어민이 실제 말할 때 나타나는 빠른 발음(sandhi) 현상에 충실하도록 평가해야 할 것이다.

2) 듣기·말하기문항비율 분석

언어의 4가지 기능 중 듣기는 의사소통 활동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Oxford, 1993). 또한 듣기는 말하기 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ESL 혹은 EFL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Abrams, 1986; Dunkel, 1986). 이에 따라 수능은 1994년 8개의 평가문항으로 시작하여 1996년에는 10개 문항으로 늘어났다. 1997년부터는 듣기와 말하기 문항을 구분하여 평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총 17문항으로 늘어났다. 이 17개의 문항 수는 2004년까지 유지되었다.

<표 2> 듣기·말하기 문항 비율 분석

년도 \ 항목	94 1차	94 2차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합계
듣기	8	8	8	10	12	12	12	13	13	13	13	13	135
말하기	0	0	0	0	5	5	5	4	4	4	4	4	35
합계	8	8	8	10	17	17	17	17	17	17	17	17	170
비율(%)	16	16	16	20	30.91	30.91	30.91	30.91	34	34	34	34	100

3) 듣기·말하기 문제형식 (format)

수능의 듣기시험은 글로 쓰여진 질문과 선택지를 보고 답을 고르는 형식이다.

예) 2004년도 듣기평가 2번

2.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를 고르시오.

- ① toy store ② drugstore ③ animal clinic
- ④ music shop ⑤ dentist s office

이러한 문제형식에는 문제점이 있다. 보통의 수험자는 선택지를 보고 난 후 선협지식을 활용하여 듣기 내용을 듣고 답을 고른다. 교과서나 상업용 듣기교재에서도 선협지식, 문맥정보, 배경지식을 활용한 듣기전략을 강조한다. 이렇게 시험유형을 잘 알고 수험전략을 가지고 있는 수험자들은 수험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최인철, 1993).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CNN과 같은 뉴스를 들을 때 무슨 내용이 나올지 예상하고 듣지는 않는다. 또한 Ellis(2003)에 따르면 듣기이해 과정은 ‘이해를 위한 듣기’(listing-to-comprehend)와 ‘학습을 위한 듣기’(listening-to-learn)로 구분된다. 비록 교육에 있어서는 선택지를 보고 무슨 내용이 나올지 예상하며 답을 선택하는 교수법을 쓰기는 하지만 교육과 평가는 엄연히 달라야 하므로, 수능 평가는 ‘학습을 위한 듣기’가 아닌 ‘이해를 위한 듣기’가 되어야 한다.

질문과 선택지가 시험지에 쓰여 있는 것은 수험자가 수험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수험자의 듣기 능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므로 내용타당도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을 문제지에 인쇄하지 않고 수험자가 들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더 바람직한 듣기평가를 수행한다고 보여진다.

4) 듣기·말하기 문제 측정요소 분석

외국어 영역에서는 이유추론, 부탁하는 일 추론, 숫자정보 및 날씨·요일 파악, 기타 특정정보 파악의 측정요소로 미시적 청해능력(micro-listening)을 측정하고 있으며, 화자-청자의 관계유추, 대화 장소 추론, 주제파악, 글의 목적 파악, 대화자의 심정추론, 세부내용 파악, 대화자의 직업추론을 통해 거시적 청해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청해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시적 청해 능력에 있으므로 청해 능력 평가에서는 의사소통의 기본이 되는 미시적 청해 능력과 전체내용의 파악을 위한 거시적 청해 능력을 평가해야한다(최인철, 1993).

수능에서는 미시적 청해능력 측정이 34.71%이며, 65.29%를 거시적 청해능력 측정에 할애하고 있으므로 청해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시적 청해능력을 비교적 비중 있게 측정하고 있다.

<표 3> 듣기·말하기 측정요소 분석

측정요소		94 1차	94 2차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합 계	비율
미시적 청해능력 (micro - listening)	대화 장소 찾기	1	1	1	1	1		1	1	2	1	1	1	12	7.06%
	숫자 정보 및 요일, 날씨 파악	2	2	1	1	1	2	1	1	1	1	1	1	15	8.82%
	할일 고르기				1			1	1	1	1	1	1	7	4.12%
	부탁하는 일 고르기					1				1		1	2	5	2.94%
	이유 고르기		1		1	1	1	1	1	1	1	1		9	5.29%
	기타 특정정보 고르기		1			1	2		3	1	1	2		11	6.47%
소계		3	5	2	4	5	5	4	7	7	5	7	5	59	34.71%
거시적 청해능력 (macro - listening)	주제, 화제 찾기	1	1	2	2	1	2	2	1	1	2	1	1	17	10.00%
	글의 목적 찾기	2	1	2	1		1	1	1	1	1		1	12	7.06%
	화자의 심정 추론					1	1	1	1		1	1	1	7	4.12%
	세부 정보 파악					1							1	2	1.18%
	화자-청자의 관계 유추			1	1	2	1	1	1	1	1	1	1	11	6.47%
	대화자의 직업 고르기	1	1		1					1				4	2.35%
	대화묘사와 일치하는 그림/사진/표 선택유 형	1		1	1	1	1	2	1	1	2	2	2	15	8.82%
	그림에 적절한 대화묘사 선택유형					1	1	1	1	1	1	1	1	8	4.71%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고르기					4	3	3	3	3	3	3	3	25	14.71%
	상황에 적절한 말 고르기						1	1	1	1	1	1	1	7	4.12%
마무리 하기					1	1	1						3	1.76%	
소계		5	3	6	6	12	12	13	10	10	12	10	12	111	65.29%
합계		8	8	8	10	17	17	17	17	17	17	17	17	170	100.00%

5) 듣기·말하기 상황(situations), 기능(functions) 분석

과거의 우리나라 영어교육은 문법 교육에만 치중하여 음성언어 교육에는 소홀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 6차 교육과정(1992~1997)에서는 의사소통 중심 교육과정으로 변화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영어교육의 목표도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내용도 개념-기능 교수요목(notional-function syllabus)을 근거로 구성하였다.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1997~)역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념-기능 중심 교수요목에 중점을 두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소재를 다양화했다.

개념-기능 교수요목에서는 개념(notions)과 기능(functions)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Van EK와 Alexander(1975)에 따르면 개념(notions)이란 일반적인 개념(general notions)과 특정한 개념(specific notions)으로 나뉜다. 여기에서 일반적인 개념은 존재(existence), 공간(space), 시간(time), 양(quantity), 질(quality)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며, 특정한 개념은 문맥(contexts)과 상황(situations)을 뜻한다. 다음으로 기능(functions)은 언어의 기능을 뜻하는 것으로, 사과하기(apologizing), 허락 요청하기(asking permission), 수락하기(accepting)등이 이에 속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개념(general notions)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통계를 내는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개념(notions)을 특정한 개념(specific notions)으로 보고 각 문맥에 대한 상황(situations)을 13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으며, 기능(functions)은 21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표 4>에서는 듣기·말하기의 상황(situations)을 분석하였다. 상황분석에서는 상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많아서 특정한 상황으로 정확하게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따라서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상황(situations)과 소재(topics)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황도 기능(functions) 분석과 과찬가지로 불균형이 심각하였는데, 일상생활(32.35%)의 상황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으며, 인터뷰 상황(0.59%)처럼 단 한 문제가 출제 된 경우도 있었다.

<표 4> 듣기·말하기 상황(situations) 분석

기능	년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합계	비율
	94 1차	94 2차												
가정생활				2				3	1		2		8	4.71%
공항			1		1			1					3	1.76%
교통수단 이용						2	1	2					5	2.94%
직장생활				1	1		2	1		1	1	2	9	5.29%
문화생활/여가활동					2	2	2	3	1	5	2	2	19	11.18%
병원			1		1	1						1	4	2.35%
쇼핑	1	1			2			1	1	1	1	1	9	5.29%
사회생활	1	1	1	1	4	3	2	1	1	3	1	2	21	12.35%
식당/외식	1		1							1			3	1.76%
우체국 업무	1								1			1	3	1.76%
일상생활	2	3	2	4	6	6	4	3	6	5	8	6	55	32.35%
인터뷰						1							1	0.59%
전화대화	2	2		2		1	3	1	1			1	13	7.65%
학교생활/학습활동		1	2			1	3	1	5	1	2	1	17	10%
합계	8	8	8	10	17	17	17	17	17	17	17	17	170	100%

다음으로 <표 5>에서는 듣기·말하기 기능(functions)을 분석 하였다. 기능을 분석한 결과 제안 및 충고하기는 17.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사과/변명, 소개, 약속, 진로 묻기, 칭찬하기는 1.18%에 지나지 않아 수능이 기능(functions)을 불균형하게 측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듣기·말하기 기능(functions)분석

기능	년도												합 계	비율
	94 1차	94 2차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견해표현			1	1			2	2	1		3		10	5.88%
길·방향 안내		1		1	2			1	1				6	3.53%
도움요청/감사	2	1			1	3	2	2	1	1	4	4	21	12.35%
물건구입하기	1				2				1	1	1	1	7	4.12%
묘사하기	1			1		1	1	1	2	1	1	1	10	5.88%
불평/책망/걱정								1	1	1	3		7	4.12%
사과/변명						1		1					2	1.18%
상태 표현				1								2	3	1.76%
소개		1		1									2	1.18%
시간·날짜 확인			1		1	1					1		4	2.35%
정보제공	1		1	1	2		1		1			1	8	4.71%
약속				1						1			2	1.18%
인사하기		1		1					2			1	5	2.94%
전화하기/전화받기	2	2	1	2		1	3	1	1			1	14	8.24%
정보교환			1		1	1		5	1	1	1	1	12	7.06%
제안/충고	1	1			5	4	4	2	1	5	4	2	29	17.06%
진로 묻기						1			1				2	1.18%
초대/청유		1				1	2		2	2	1	2	11	6.47%
축하			1			1		1		2			5	2.94%
칭찬							1		1				2	1.18%
후회 및 위로/격려			2		3	2					1		8	4.71%
합계	8	8	8	10	17	17	17	17	17	17	17	17	170	100%

이처럼 수능의 듣기·말하기 영역의 상황(situations)과 기능(functions)분석

결과 상황과 기능 모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수능이 측정하고자 하는 의사소통 기능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내용 타당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3. 독해(읽기·쓰기) 분석

수능의 독해는 읽기와 쓰기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읽기능력 평가에서는 같은 유형의 문제가 해마다 출제되어 거의 변화가 없으며, 쓰기능력 평가에서는 문장순서 유형을 통해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내용타당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1) 독해 문항비율 분석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이며 그 정보의 대부분은 인터넷이 축을 이루고 있다. 인터넷의 정보는 거의 대부분이 영어로 쓰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어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며 이러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속독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독해 시험에서 속도는 중요한 요소(최인철, 1993)라고 할 수 있으며, 독해능력 평가시험은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1994년에는 독해 문항 수가 40문제였으나, 1996년도에는 듣기평가가 2문제 늘어남에 따라 38문제로 감소하였고, 1997년 이후부터 2000년까지는 말하기 평가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독해 문항수가 감소되었다. 이처럼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듣기 문항수가 늘어나고 말하기 평가가 새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전체 문항 중 독해 문항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1997년부터 17문제로 고정된 듣기 및 말하기 평가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에는 전체 문항수가 55

문제에서 50문제로 줄어들어 다른 영역의 문항 수는 큰 변화 없이 독해 문항 수만 감소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수험자의 독해 능력 평가를 위해서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2001년 이후의 독해 문제의 감소현상은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아래의 표를 보면 수능은 편중된 언어기술을 측정하는 시험임을 알 수 있다. 가장 최근의 시험인 2004년을 보면 전체문항의 60%를 이해기능 측정에 할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언어의 4대영역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을 골고루 평가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므로 각 영역의 비율을 골고루 출제하여 비슷한 비율로 맞출 필요가 있다.

교과서에서도 의사소통 중심 교육과정에 따라 각 과마다 듣기 및 말하기 영역을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으므로 독해영역에 많은 문항수를 할애하고 있는 수능은 수험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지 못하므로 내용타당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험자의 올바른 독해 능력 평가를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되 언어의 4대 영역이 균형을 이루어 평가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적절한 수능의 독해 문항수를 명확하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전체 문항 중 독해문항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영역과 균형을 이루도록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표 6> 독해 문항 비율

년도	94 1차	94 2차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문항수 독해 (문항수)	40	40	40	38	36	37	36	36	32	31	30	30
비율	80%	80%	80%	76%	65.45%	67.27%	65.45%	65.45%	64%	62%	60%	60%

2) 독해 문제 유형 및 측정요소분석

유형과 측정요소는 반드시 구분되어 분석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대부분의 수능 관련 논문(정길정, 2003; 전병만, 2002; 정호영, 1998; 이은경, 1995)과 상업용 교재에서는 이 두개의 개념을 서로 혼동하고 있다.

한 예로 “EBS 수능출제 유형분석”에 있는 문제유형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칭 추론
2. 함축 의미 추론
3. 중의 파악 및 사전 찾기
4. 연결사
5. 빈칸 완성 (1) : 세부 내용 완성
6. 빈칸 완성 (2) : 주제문 완성
7. 문법성 판단
8. 대화문의 이해
9. 내용 일치 여부 파악
10. 글의 종류 및 목적
11. 글의 전후 내용 추론
12. 문장의 위치 파악, 무관한 문장 찾기
13. 글의 순서
14. 주제 찾기
15. 제목 찾기
16. 글의 요지 파악
17. 필자의 주장 파악
18. 글의 내용 요약

19. 도표 및 실용문의 이해
20. 필자의 심경과 어조
21. 글의 분위기와 상황
22. 복합 문단의 이해
23. 장문의 이해
24. 기타 유형

이 유형분류에서는 유형과 측정요소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Madsen(1983)에 따르면 선다형 시험 개발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i) 측정 언어 능력의 세부요소 선정
- ii) 언어능력 측정에 적합한 시험유형 및 난이도 결정
- iii) 적합한 내용문맥 선별
- iv) 적합한 오답지 제작

이처럼 선다형 시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언어능력의 세부요소를 측정하는 측정요소(sub-skills)와 문제유형(tasks)은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업용 교재인 수능 비법전수 passing code(김준영, 2004), 파사쥬 외국어 영역 듣기·말하기 유형 편(이보길 외, 2004), 능률 외국어 영역 단기특강 코스 얇다-유형 편(이찬승, 2004), EBS 수능 출제 유형분석(이형 외, 2003)을 참고하여, 이 둘의 개념을 구분하여 <표 7>을 통해 각년도 별 독해문제 유형 비율을 살펴보고, <표 8>을 통해 유형별 측정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제 유형을 분석한 결과 Q&A 유형이 52.9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빈칸 채우기 유형이 17.87%를 차지했다. 그 뒤를 세트(set)문항 유형(12.06%), 문장순서 유형이(7.42%) 이었다.

지난 11년간 문제 유형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최근에도 꾸준히 출제되었다. 이처럼 내용 타당도가 낮은 문제 유형이 고정되어 계속 출제되면 수험자가 수험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내용 타당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타당한 문제개발을 통해 여러 측면에서 수험자의 외국어 능력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표 7> 독해 문제유형 비율

유형		년도												합계	비율
		94 1차	94 2차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빈칸 채우기 유형	어구 완성형	7	6	6	8	7	6	5	5	4	5	5	6	70	16.43%
	접속사/연결어 완성형		1	2	1	1	1	1						7	1.64%
	소계	7	7	8	9	8	7	6	5	4	5	5	6	77	18.08%
문장 순서 유형	배열	1	1	1	1		1	1	1	1	1			9	2.11%
	제거	1	1	1	1	1	1	1	1	1	1	1	1	12	2.82%
	삽입	1	1	1	1	1	1	1	1	1	1	1		11	2.58%
소계		3	3	3	3	2	3	3	3	3	3	2	1	32	7.51%
요약문 완성		1	1	1	1	1	1	1	1	1	1	1		11	2.58%
대화문 완성				1	1									2	0.47%
인터뷰 완성										1	1	1		3	0.70%
구어체 문장 완성형		2	1	2	1									6	1.41%
도표/그래프 이해유형 (verbal description)				1	1	2	1	1	1	1	1	2	1	12	2.82%
세트(set) 문항		4	4		2	6	6	6	6	4	4	4	6	52	12.21%
안내문을 장소와 연결하기						1								1	0.23%
주어진 질문에 대한 찬반의견 고르기								1	1					2	0.47%
Q&A 유형		23	24	23	20	16	19	18	19	18	16	15	16	228	53.29%
복합문 이해유형				1										1	0.23%
합계		40	40	40	38	36	37	36	36	32	31	30	30	426	100%

<표 8> 독해 유형별 측정요소

측정 요소 유형	의 사 소 통 능 력	대 의 과 악	추 론 능 력	표 현 능 력 측 정	내 용 의 응 집 성	논 리 적 사 고 력	관 련 된 속 담/ 격 언/ 교 훈 찾 기	지 칭 추 론	주 제 과 악	대 의 과 악	제 목 과 악	세 부 내 용 과 악	특 정 정 보 과 악	상 황 판 단	글 의 목 적 과 악	글 의 종 류 과 악	어 조/ 태 도/ 심 경/ 분 위 기 과 악	화 자 의 도 과 악	전 후 문 맥 유 추	찬 반 의 견 과 악	합 계		
																						94 1차	94 2차
유형 1 빈칸 채우기 유형 1 (어구 완성형)			7																		7		
			7																			7	
				8																			8
				9																			9
				8																			8
				7																			7
				6																			6
				5																			5
				4																			4
				5																			5
			6																			6	
유형 1 빈칸 채우기 유형 2 (접속사 완성형)																							
				1																		1	
				2																			2
				1																			1
				1																			1
				1																			1
				1																			1

측정 요소 유형		의 사 소 통 능 력	대 의 과 악	추 론 능 력	표 현 능 력 측 정	내 용 의 응 집 성	논 리 적 사 고 력	관 련 된 속 담/ 격 언/ 교 훈 찾 기	지 칭 추 론	주 제 과 악	대 의 과 악	제 목 과 악	세 부 내 용 과 악	특 정 정 보 과 악	상 황 판 단	글 의 목 적 과 악	글 의 종 류 과 악	어 조/ 태 도/ 심 경/ 분 위 기 과 악	화 자 의 도 과 악	전 후 문 맥 유 추	찬 반 의 견 과 악	합 계	
유형 2 문장 순서 유형 (배열, 제거, 삽입)	94 1차					3																	3
	94 2차					3																	3
	95					3																	3
	96					3																	3
	97					2																	2
	98					3																	3
	99					3																	3
	00					3																	3
	01					3																	3
	02					3																	3
	03					2																	2
	04					1																	1
유형 3 도표/ 그래프 이해 유형 (verbal descrip - tion)	94 1차																						
	94 2차																						
	95												1										1
	96												1										1
	97												2										2
	98												1										1
	99												1										1
	00												1										1
	01												1										1
	02												1										1
03												2										2	
04												1										1	

측정 요소 유형	의사소통능력	대의과악	추론능력	표현능력측정	내용의응집성	논리적사고력	관련된 속담/ 격언/ 교훈 찾기	지칭 추론	주제 과악	대의 과악	제목 과악	세부 내용 과악	특정 정보 과악	상황 판단	글의 목적 과악	글의 종류 과악	어조/ 태도/ 심경/ 분위 기 과악	화자 의도 과악	전후 문맥 유추	찬반 의견 과악	합 계	
	유형 4 주어진 질문에 대한 긍정 답안 고르기	94 1차																				
94 2차																						
95																						
96																						
97																						
98																						
99																				1	1	
00																				1	1	
01																						
02																						
03																						
04																						
유형 5 세트 (set) 문항	94 1차	2						1			1										4	
	94 2차	2							1		1										4	
	95																					
	96										1	1									2	
	97				1		1			2			2								6	
	98				1		1	1			1	1	1								6	
	99				1		1	1		1	1	1									6	
	00					1		1		1	1	1					1				6	
	01				1			1		1							1				4	
	02							2				1	1								4	
	03					1		1			1						1				4	
	04				1	2		1	1		1										6	

측정 요소 유형	의 사 소 통 능 력	대 의 파 악	추 론 능 력	표 현 능 력 측 정	내 용 의 응 집 성	논 리 적 사 고 력	관 련 된 속 담/ 격 언/ 교 훈 찾 기	지 칭 추 론	주 제 파 악	대 의 파 악	체 목 파 악	세 부 내 용 파 악	특 정 보 파 악	상 황 판 단	글 의 목 적 파 악	글 의 종 류 파 악	어 조/ 태 도/ 심 경/ 분 위 기 파 악	화 자 의 도 파 악	전 후 문 맥 유 추	찬 반 의 견 파 악	합 계
유형 6 Q & A 유형	94 1차						1	5	2	3	1	3	1		2		2	1	2		23
	94 2차						1	3	2	4	3	2			1	1	4	1	2		24
	95						1	5	1	4	1		1		2		5	1	2		23
	96							3	3	4	1	2			1	1	2	1	2		20
	97						1	2	4	1	1	2	1		1		2	1			16
	98							4	2	2	2	2	1		1		2	1	2		19
	99						1	1		2	2	3	1		1		4	1	2		18
	00							2	2	3	2	2			1	1	3	1	2		19
	01						2	3	2	2	2	2	1		1	1	1		1		18
	02							2	2	3	2	2			1		2	1	1		16
	03							1	2	3	2	2	2				2		1		15
	04							1	2	3	2	2			1		3	1	1		16
유형 7 대화문 완성 (문어체 -> 구어체)	94 1차																				
	94 2차																				
	95	1																			1
	96	1																			1
	97																				
	98																				
	99																				
	00																				
	01																				
	02																				
03																					
04																					

측정 요소 유형	의사소통 능력	대의 파악	추론 능력	표현 능력 측정	내용의 응집성	논리적 사고력	관련된 속담/격언/ 교훈 찾기	지칭 추론	주제 파악	대의 파악	제목 파악	세부 내용 파악	특정 정보 파악	상황 판단	글의 목적 파악	글의 종류 파악	어조/ 태도/ 심경/ 분위기 파악	화자의 도파악	전후 문맥 유추	찬반 의견 파악	합 계	
	유형 8 인터뷰 완성	94 1차																				
94 2차																						
95																						
96																						
97																						
98																						
99																						
00																						
01		1																				1
02		1																				1
03		1																				1
04																						
유형 9 안내문 장소 연결 하기	94 1차																					
	94 2차																					
	95																					
	96																					
	97												1									1
	98																					
	99																					
	00																					
	01																					
	02																					
	03																					
	04																					

측정 요소 유형	의 사 소 통 능 력	대 의 과 악	추 론 능 력	표 현 능 력 측 정	내 용 의 응 집 성	논 리 적 사 고 력	관 련 된 속 담/ 격 언/ 교 훈 찾 기	지 칭 추 론	주 제 과 악	대 의 과 악	제 목 과 악	세 부 내 용 과 악	특 정 정 보 과 악	상 황 판 단	글 의 목 적 과 악	글 의 종 류 과 악	어 조/ 태 도/ 심 경/ 분 위 기 과 악	화 자 의 도 과 악	전 후 문 맥 유 추	찬 반 의 견 과 악	합 계		
유형 10 구어체 문장 완성	94 1차	2																			2		
	94 2차	1																				1	
	95	2																				2	
	96	1																				1	
	97																						
	98																						
	99																						
	00																						
	01																						
	02																						
	03																						
	04																						
유형 11 요약문 완성	94 1차	1																				1	
	94 2차	1																				1	
	95	1																				1	
	96	1																				1	
	97	1																				1	
	98	1																				1	
	99	1																				1	
	00	1																				1	
	01	1																				1	
	02	1																				1	
	03	1																				1	
	04																						

측정 요소 유형	의 사 소 통 능 력	대 의 파 악	추 론 능 력	표 현 능 력 측 정	내 용 의 응 집 성	논 리 적 사 고 력	관 련 된 속 담/ 격 언/ 교 훈 찾 기	지 칭 추 론	주 제 파 악	대 의 파 악	제 목 파 악	세 부 내 용 파 악	특 정 정 보 파 악	상 황 판 단	글 의 목 적 파 악	글 의 종 류 파 악	어 조/ 태 도/ 심 경/ 분 위 기 파 악	화 자 의 도 파 악	전 후 문 맥 유 추	찬 반 의 견 파 악	합 계	
유형 12 복합문 이해 유형	94 1차																					
	94 2차																					
	95											1										1
	96																					
	97																					
	98																					
	99																					
	00																					
	01																					
	02																					
	03																					
	04																					

다음으로 각 유형별 내용타당도에 대해 분석을 하겠다.

(1) 빈칸 채우기 유형

수능에서 빈칸 채우기 유형은 핵심적인 중요어구를 채워 넣는 것으로 내용의 응집성, 대의파악, 논리적인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어구 완성형, 접속사 및 연결어 완성형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빈칸 채우기 유형 중 어구 완성형은 중요한 어구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은 수험자가 빈칸의 전후에 주어지는 문맥을 통하여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험자의 예측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출제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

선택지 내용의 질적인 문제는 선다형 선택지 유형의 독해시험 내용 타당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최인철, 1993)이므로 오답지의 작성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예) 2004년 23번

23. Professional athletes do not agree on _____ . Some star players believe that their role is to be a great player, not a role model for young people. They insist, “We’re not paid to be role models.” They strongly believe that what they do in their private lives is their own business. On the contrary, other star players

disagree. They maintain that sports stars are role models for people even though they may not want to be. They say, “We do not choose to be role models. We are chosen. Our choice is whether to be good role models or bad ones.”

- ① what their roles should be
- ② why sports are so entertaining
- ③ what makes models popular
- ④ how they can become star players
- ⑤ why they only think about their privacy

위의 문제는 빈칸 다음 문장 “Some star players believe that their role is to be a great player, not a role model for young people.”을 통해 선수들의 역할(role)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부 문장만을 읽고도 답을 알 수 있으므로 내용 타당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①을 제외한 나머지 선택지 4개는 ‘역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수험자가 답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위와 같이 선택지의 선택은 타당도에서 중요한 문제점이 될 수 있으므로 선택지의 질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타당도를 높여야한다.

빈칸 채우기의 또 다른 유형인 접속사/연결어 완성형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표현능력 및 내용의 응집성을 측정하는 유형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은 빈칸의 앞 뒤 내용을 보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아 내용타당도가 떨어진다. 예를 들어 빈칸 앞 뒤 내용이 정 반대이면 but, on the contrary, in contrast, however 등이 답이 될 수 있다.

예) 1999년 29번

29. Elements of culture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e first is the material culture, which is made up of all the physical objects that people make and give meaning to. Books, clothing, and buildings are some examples. We have a shared understanding of their purposes and meanings.

_____ , nonmaterial culture consists of human creations that are not physical. Examples of nonmaterial culture are values and customs. Our beliefs and the languages we speak are also part of our nonmaterial culture.

- ① Above all ② In addition ③ **In contrast**
④ As a result ⑤ In fact

이 문제는 빈칸 다음의 단어 “nonmaterial culture”로 앞 뒤 내용이 서로 반대의 내용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수험자는 빈칸 다음의

내용으로 답안을 쉽게 고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유형을 출제할 때에는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만들기 위하여 수험자가 쉽게 답을 고를 수 없도록 주의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빈칸 채우기 유형에서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또 다른 요인으로 빈칸을 지문의 앞부분에 제시하는 것이다. 빈칸 채우기 유형에서 빈칸은 가능한 지문의 후반부에 제시해야 자연스러운 독해과정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인철 1993).

지난 11년간 수능 외국어 영역에서 독해지문 또는 구어체 문장에서 첫 문장을 포함하여 첫 부분에 빈칸을 제시한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독해 첫 부분에 빈칸을 제시한 문제

년도	94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합계
문제수	1차	2차											
문제 수	1		3						1	2	2	4	13

예) 2004년도 22번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2. Teens surround themselves with _____ audiences. They imagine others are as interested in them as they are in themselves. Believing that everyone is watching them, teenagers are extremely self-conscious. A young boy, for example, may believe that he is unattractive because of his nose. Nothing can convince him that other people are paying no attention to his nose at all. Also, when chatting with friends, some teenage girls are too expressive, talking and laughing loudly,

playing to their unreal audiences. They gradually realize, however, that others are not really interested in them. Teenagers behavior changes when they realize others are too busy with their own lives to be watching them.

- ① loud ② busy ③ friendly
- ④ **imaginary** ⑤ attractive

이 문제는 빈칸이 첫 문장부터 제시되어 있어서 수험자가 자연스러운 독해 과정을 하는데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처음부터 빈칸을 제시하면 수험자는 나머지 글을 읽어보지 않아도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만 읽어보고 답이 imaginary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11년 동안 총 13문제가 앞부분에 빈칸으로 제시되었으며, 가장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하는 2004년도 수능에서는 무려 3문제가 앞부분에 빈칸을 제시하였다. 이는 출제위원의 시험문제 출제능력에 다소 의심이 가는 부분이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앞부분에 빈칸을 제시하면 수험자의 자연스러운 독해과정을 방해한다. 따라서 빈칸을 제시할 때는 수험자가 첫 부분만 읽고도 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지막 부분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문장순서 유형

문장순서 유형은 논리적인 이해력과 응집력(coherence)을 측정하는 유형으로 다음의 3가지 형태가 있다. 이 유형은 수험자의 작문실력을 직접 쓰기시험을 통해 평가하고 있지 않으므로 내용타당도가 떨어진다.

① 문장순서 배열

문장순서 배열 문제는 몇 개의 단락을 임의적으로 섞은 후 수험자에게 논리

적인 순서에 맞게 배열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이 유형에서는 접속사나 지시사를 통해 문장의 순서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체의 글을 지나치게 많이 제시하여 순서를 섞어 놓으면 재배열이 매우 어려우므로 3~4개의 단락이 적당하다(최인철, 1993).

예) 2002년 36번

36. 주어진 문장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We have the good fortune to live in a democracy.

(A) Without this freedom, the decision-makers may make our lives difficult because they wouldn't know what we think.

(B) We should, therefore, be ready to fight for the right to tell the truth whenever it is threatened.

(C) But what does democracy mean to us if we don't have the freedom to tell the truth?

① (A) -(B) -(C) ② (A) -(C) -(B) ③ (B) -(C) -(A)

④ (C) -(A) -(B) ⑤ (C) -(B) -(A)

이 문제에서는(A)의 this freedom, (B)의 therefore, (C)의 but을 통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A)의 this freedom은 (A) 앞에 이미 freedom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A) 앞에는 freedom이 언급된 (C)가 와야 한다. 또한 (B)의 therefore는 결론을 내리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C)의 but은 (C)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와야 하므로 주어진 문장 다음에 와야 한다. 수험자는 이러한 단서를 통해 순서가 (C) - (A) - (B)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시사 및 접속사를 통해 수험자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피해야 한다.

다음의 예는 지시사 만으로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 있어서 내용타당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또 다른 예이다.

예) 2001년 19번

19. 주어진 문장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lice in Love was one of the top ten money-making movies last year.

(A) These figures clearly show how successful the two movies were around the world.

(B) The movie was chosen as the best film of the year, and it earned \$ 57 million at the box office.

(C) This figure was only \$1 million less than what the movie Fishermen earned.

- ① (A)-(B)-(C)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이 문제에서 (A)와 (C)의 지시사 these figures와 this figure는 처음에 제시된 문장 “Alice in Love was one of the top ten money-making movies last year.”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이므로 (A)와 (C)가 처음부터 나올 수 없으므로 글의 흐름상 (B)가 제일 먼저 와야 한다. 또한 (A)의 지시사 two movies는 (C)에 언급되어 있으므로 이 글의 순서는 (B)-(C)-(A)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시사를 통해 답이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문제 출제 시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② 불필요한 문장의 제거

이 유형은 내용의 응집력을 측정하며 전체적인 글의 흐름과 상관이 없는 문장을 선택하는 것으로, 처음 제시된 문장과 관련이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유형에서는 너무 거리가 먼 선택지를 제시하여 타당도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예) 2000년 53번

53.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Kim Son-dal needed money again. ①How could he make money when he had nothing to sell? ②**This is why water resources require careful management.** ③He had a great idea. ④He formed his own on-line company : Daedonggang Froup. ⑤Soon all the yangban nobles bought shares, and Kim Son-dal became rich.

※share : 주식

위 문제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돈과 관련된 얘기이며 선택지 ②는 경영과 관련된 얘기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거리가 먼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타당도를 떨어뜨린다고 할 수 있다.

③ 필요한 문장의 삽입

필요한 문장의 삽입 유형은 글의 일관성을 위하여 주어진 문장을 가장 알맞은 곳에 삽입하도록 하는 문제로 문장순서 유형과 마찬가지로 접속사나 지시어를 통해 쉽게 답을 유출할 수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예) 2001년 33번

3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Special-interest magazines, on the other hand, deal mainly with one particular subject.

There are basically two types of magazines : news magazines and special-interest magazines. (①) News magazines are a combination of newspaper and magazine. (②) Most news magazines are published, weekly. (③) They summarize the major world and national news stories. (④) They also report on important events in many subject areas. (⑤) Magazines of this type are usually published once a mon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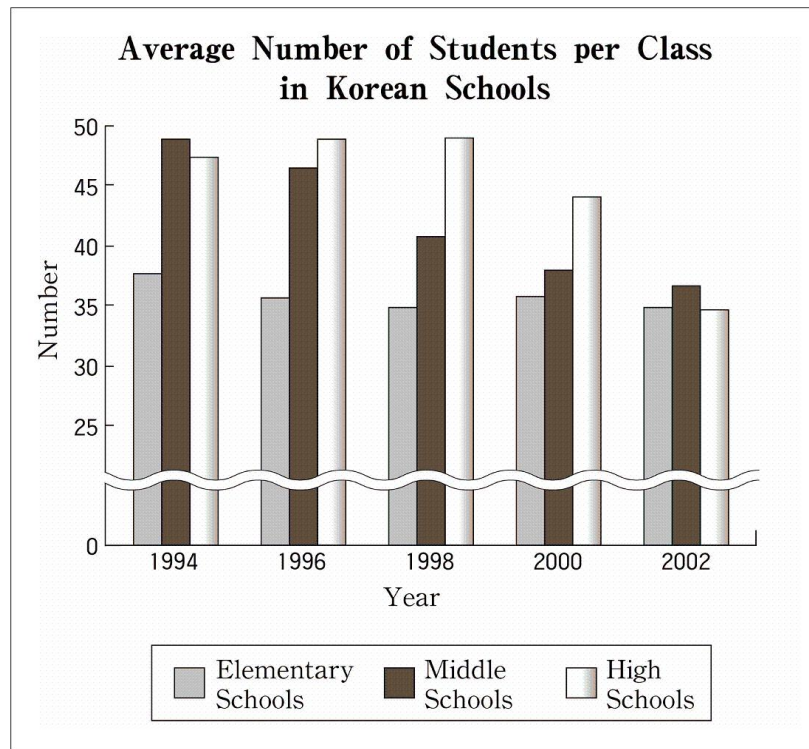
이 문제는 제시된 문장에 나온 접속사인 "on the other hand"에 단서를 제시함으로써 앞의 내용과 전혀 다른 문장인 ⑤를 정답으로 쉽게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에서는 지문의 전체내용을 다 읽어보지도 않고 접속사만 보기도 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접속사를 사용하여 수험자에게 지나친 단서를 제공하여 변별력을 터무니없이 낮추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도표/그래프 이해유형 (verbal description)

이 유형은 도표나 그림을 제시하고 제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로 수험자의 사실적인 이해능력 및 세부내용 파악능력을 측정하고 있으며, 내용의 일치, 불일치를 묻는다. 이 유형에서는 많은 문제가 지시문에서 도표나 그래프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언급하여 수험자가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게 하여 내용타당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예) 2004년 32번

32. 다음은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나타낸 도표이다.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점]



- ① The averag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in middle schools was the largest in 1994.
- ② There were fewer than 40 students in the average elementary school class from 1994 to 2002.
- ③ The average number of high school students per class steadily decreased from 1994 to 2002.
- ④ Between 1994 and 2002, the average number of middle school students per class was larger than tha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 ⑤ Unlike the average middle school class size, there was little change in the average elementary school class size from 1996 to 2002.

이 문제에서 도표에 이미 "Averag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in Korean schools"라고 언급하여 이 표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음에도, 문제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나타낸 도표"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verbal description 유형의 세부내용 파악 측정요소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표의 내용을 지시문에서 지나치게 구체화할 필요는 없다.

(4) 주어진 질문에 대한 긍정답안 고르기

이 유형은 1999년 새롭게 등장한 문제로, 1999년, 2000년 단 두 차례 출제되었다. 이렇게 새로운 유형을 개발하여 제시한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다. 수험자에게 노출빈도수가 적어 소위 말하는 '찍기' 요령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제출할 때에는 너무 직접적인 표현을 써서 답이 쉽게 드러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예) 2000년 30번

30. 주어진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사람을 모두 열거한 것은?

If a corner shop gives you change for \$10 when you only paid \$5, will you return the money?

Tony : We should take what we can get. Everybody else does. I'll take the money.

Chris : I don't want to take anyone's money. So the answer is "Yes."

I'd give the money back to the corner shop.

Judy : I am a fairly important person in my company, so I have to look honest. I can't take the risk of not returning the money.

- ① Chris ② Tony, Chris ③ Tony, Judy
④ **Chris, Judy** ⑤ Tony, Chris, Judy

이 문제에서는 답이 쉽게 드러나도록 너무 직접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I'll take the money.", " I don't want to take anyone's money."가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5) 세트(set) 문항

수능에서는 거의 1지문 1문항의 원칙(OPOI-One Passage One Item)을 따르고 있었으나, 1개의 지문 또는 2개 이상의 지문이 1세트(set)로 구성되어 2개의 문제가 출제된 문항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국부종속(local dependance)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최인철, 1993). 다시 말해 수험자가 그 문제의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지문에 해당되는 모든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많다. 또한 반복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며, 1지문 1문항 방식보다 다양한 소재(topics)를 다룰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예) 2003년 49~50번

[49~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Once a week, write a heartfelt letter. Taking a few minutes each week to do so does many things for you. (a)Picking up a pen slows you down long enough to remember the beautiful people in your life. The act of sitting down to write helps to fill your life with appreciation. Once you decide to try (b)this, you'll probably be amazed at how many people appear on your list.

The purpose of your letter is very simple: to express love and gratitude. Don't worry if you're not good at (c)writing letters. If you can't think of much to say, start with short little notes like, "Dear Jasmine, How lucky I am to have friends like you in my life! I am truly blessed, and I wish you all the happiness and joy that life can bring. Love, Richard."

Not only does the act of writing a note like this focus (d)your attention on what's right in your life, but the person receiving it will be touched and grateful. Often (e)this simple action starts a chain of loving actions whereby the person receiving your letter may decide to do the same thing to someone else, or perhaps will act and feel more loving toward others.

49.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Love Letters and Dating
- ② How to Write Business Letters
- ③ **How Letters Improve Life**
- ④ Reasons for Writing to Yourself
- ⑤ Types and Purposes of Letters

50.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 중 나머지 넷과 가리키는 바가 다른 것은?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6) Q & A 유형

Q & A 유형은 수능에서 가장 전형적인 문제로 주제파악, 대의파악, 제목파악, 세부내용파악, 특정정보 파악, 분위기 파악, 상황판단, 글의 목적파악, 글의 종류파악, 성격이 다른 것 파악, 필자의 어조/태도/심경유추, 화자의 의도 파악, 전후문맥 파악, 어휘의미파악, 찬반의견 파악, 관련된 속담/격언/교훈 찾기를 측정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이 유형은 출제비중이 53.29%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높지만 찍기가 가능한 대표적인 유형으로 내용 타당도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유형은 출제빈도가 가장 높고 다양한 측정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측정요소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살펴보겠다.

① 주제파악

이러한 측정요소는 타당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이는 거의 모든 수험자들이 주제문은 첫 부분 또는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다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 읽어도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아서 나머지 부분을 읽지 않고 답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수험자는 이러한 유형의 측정요소를 위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으로 주제를 파악한 후 마지막 문장으로 답을 확실히 확인해서 답을 유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문제유형은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학습태도를 야기 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학습자가 첫 부분만 읽고 답을 선택하는 단순한 읽기전략의 훈련에

의해 문제풀이가 가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험자의 사실적 이해능력 파악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문제유형 개발이 필요하다.

예) 2002년 38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8. Will cyber schools replace traditional schools some day? In spite of their problems, traditional classrooms hold many advantages over online classes. First of all, traditional classrooms are a place where students may relate to one another face to face. That is, a keyboard will never be able to replace the warmth of a handshake, or a monitor the smile of another student. In traditional schools, students may also take part in team sports, club activities, and school festivals, choices not available to students who learn through computers.

- ① demand for online classes
- ② advantages of cyber schools
- ③ **benefits of traditional schools**
- ④ origins of computer use in schools
- ⑤ limitations of face-to-face interaction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traditional school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마지막 문장은 traditional school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측정요소는 지문을 다 읽지 않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약점이 있다.

② 제목파악

제목과약 문제도 주제과약과 마찬가지로 수능에서는 지문의 일부만 읽고도 답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타당도가 매우 낮은 문제이다.

예) 2004년 35번

35.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 small number of people have recognized the value of wild plants in Korea. They are fascinated by the beauty of these plants and have been motivated to conserve them after discovering the tragic realities these plants face. Because of indifference to and destruction of their natural habitats, some wild plants confront an uncertain future. Given this situation, these people have striven to conserve the wild plants growing in Korea. They have taught the public to value plant species and launched efforts to preserve wild plants for generations to come. Thanks to their efforts, more Koreans now understand the full value of their precious wild plants.

- ① Wild Flowers of the World
- ② Types of Rare Species in Korea
- ③ How Koreans Grow Rare Flowers
- ④ **Conserving Wild Plants in Korea**
- ⑤ Wild Plants: The Beauty of Nature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 문장 “A small number of people have recognized the value of wild plants in Korea.”, 과 마지막 문장 “Thanks to their efforts, more Koreans now understand the full value of their precious wild plants.”만 읽어도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수능 외국어 영역에서 Q&A의 한 측정요소로 제목파악과 주제파악은 마치 다른 측정요소인 것처럼 분리되어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목파악과 주제파악의 두 측정요소는 같은 측정요소이며 한 개의 측정요소로 출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능 출제에서는 같은 측정요소를 반복해서 측정하기 보다는 새로운 유형 및 측정요소 개발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③ 대의파악

대의파악은 글쓴이가 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내용을 찾는 것으로 지문 속에 주제문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다.

예) 2004년 43번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46. The post-cold war world is a very different place. Power is moving from Western countries to other areas of the world. Global politics, as a result, has become more complex, involving countries from many civilizations. In this new world, both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culture determine partners and enemies. These factors have caused political and economic differences among countries. Moreover, these differences often cause local conflicts to grow into larger wars. Thus, the most important issue facing these countries is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among cultures.

① 탈냉전 시대에는 문화적 차이가 소멸된다.

② 국제 권력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고 있다.

③ 국제 정치에서 문화 차이의 이해가 중요하다.

④ 국제 사회에서 국가간의 분쟁은 필연적이다.

⑤ 문명 간 충돌이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마지막 문장이 결론을 유도하는 thus로 시작되므로 주제문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정요소를 위한 문제를 출제할 때에도 첫 문장이거나 마지막 문장에서 주제문이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수험자가 thus, so, however와 같은 연결어가 들어간 문장만을 보고 답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연결어의 쓰임에도 주의를 해야 한다.

④ 글의 목적파악

글의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편지나 광고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로 필자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의파악과 같은 측정요소라고 볼 수 있다.

예) 2004년 41번

41. 다음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I'm glad to hear that you're going to Korea to study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You sound a little worried, but I think living in a foreign country can be more exciting than you might imagine. I myself had a hard time at first. However, as time passed, I found myself doing better when I concentrated more on improving my language ability and making friends. I learned how to play a traditional Korean musical instrument, the *janggu*, which helped me make friends more easily. You're one of the brightest people I know, so I'm sure you'll do just fine.

- ① to criticize ② to invite ③ to encourage
 ④ to appreciate ⑤ to complain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대의파악과 글의 목적파악 역시 같은 측정요소임에도 두 개의 측정요소로 구분을 했다. 이는 문제의 유형 및 측정요소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유형 및 측정요소의 개발의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⑤ 지칭추론

지칭추론은 크게 ‘지시어가 가리키는 내용추론’, ‘밑줄 친 지시어의 의미파악’ 두 가지로 측정하고 있다. 이 측정요소는 지시어가 있는 문장을 포함하여 앞 뒤 문장만 읽고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이 유형 또한 내용타당도가 떨어진다. 먼저 ‘지시어가 가리키는 내용 추론’의 예는 다음과 같다.

예) 2000년 20번

20. 다음 글에서 밑줄 친 They가 뜻하는 것은?

They sometimes work for large department stores and draw pictures of the stores' latest fashions. They must picture the dress on the model-in the mood and setting that will make it seem most attractive. They often work for advertising agencies, where they create striking pictures and tasteful designs. In this way, they will attract public attention and show the product to be advertised in a good light. Newspapers carry many examples of their art. Indeed, instances of it are all around us.

- ① store clerks ② art designers
 ③ fashion models ④ newspaper reporters

⑤ computer programmers

위의 문제에서 They가 가리키는 것을 찾기 위해 지시어가 가리키는 문장 “They sometimes work for large department stores and draw pictures of the stores’ latest fashions.” 과 그 다음 문장 “They must picture the dress on the model-in the mood and setting that will make it seem most attractive.”만 읽어도 쉽게 답을 유출할 수 있는 약점이 있다.

다음은 ‘밑줄 친 지시어의 의미파악’ 문제에 대한 ‘예’이다.

예) 2000년 22번

22. 다음 글에서 밑줄 친 was beside himself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Like most other boys, John Palmer liked football and loud music. But what he liked most was going to the movies. And of all the movie stars, he thought Jane Brightman was the most beautiful. For his sixteenth birthday, his parents got him tickets for the first showing of Jane Brightman’s new movie, Last Friday Night. John was beside himself. When he discovered that he would be sitting right next to Jane Brightman, he nearly fainted with joy.

- ① 재주가 많았다. ② 정신 이상자였다.
- ③ 자신감이 부족했다. ④ 기분이 매우 좋았다.
- ⑤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다.

이 문제 역시 밑줄 친 다음 문장에서 “was beside himself”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he nearly fainted with joy.” 구문으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⑥ 전후문맥 유추

전후문맥 유추 측정문제는 수험자의 작문실력을 이 측정요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한다는 점에서 내용 타당도가 떨어진다. 하지만 수험자의 논리적인 추론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측정요소는 지문의 앞에 올 내용을 찾는 문제와 지문의 뒤에 올 내용을 찾는 문제 2가지가 있다.

먼저 지문의 앞에 올 내용을 찾는 문제는 지문의 첫 부분만 읽으면 답이 해결되는 문제가 많다.

예) 2002년 40번

40. 다음 글 바로 앞에 올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You can see and feel exactly what this teenage girl is going through. I can remember feeling very frustrated and confused sometimes in my teens. I can also remember my emotions swinging from one extreme to another. So, for example, I would get incredibly mad about something, usually something silly. Then I would get mad at myself about being so angry, and then get mad again about what made me angry. I seemed to have absolutely no control over these feelings.

- ① 필자의 여성관 ② 필자의 노년기
- ③ 필자의 기억 상실 ④ 소녀의 정서적 방황
- ⑤ 소녀의 성공담

이 문제는 첫 문장을 통해 10대 소녀들이 겪게 되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서 답은 ④, ⑤로 좁혀지며,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소녀들이 겪는 것이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전체 내용을 읽지 않고도 답이 ④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내용 타당도가 떨어진다.

다음으로 글의 뒤에 오는 내용을 고르는 문제는 먼저 주제를 파악한 후 마지막 문장을 보면 답이 쉽게 나타나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 2001년 36번

36. 다음 글 바로 뒤에 올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use of the Internet is on the rise every year, and this creates many challenges.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in the Internet world is security or safety. Businesses, for example, need to make sure that their sites on the Internet are safe for their users. They need to know who e-mail senders are and whether information coming and going is correct. Most important, they should take measures to be certain that company secrets remain protected. Below are presented some methods that one business is using to meet this challenge.

- ① 기업간 경쟁 방법 ② 홈페이지 제작 방법
③ 인터넷 보안 방법 ④ 구조 조정의 중요성 ⑤ 도전 정신의 중요성

첫 부분에서 이미 주제문이 나왔는데, 첫 두 문장만 읽으면 이 글이 인터넷 보안에 관한 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단서인 마지막 문장을 보면 그 다음 내용이 인터넷 보안에 관한 설명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전후문맥 유추 문제는 지문의 일부분만 보고도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내용 타당도가 떨어진다.

⑦ 세부내용 파악

세부내용 파악은 내용의 일치, 불일치를 묻는 것이다.

예) 2001년 34번

34. 목욕물의 온도에 대한 설명 중,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Water is a very simple solution to many everyday ills. A hot bath in water of 38°C or 39°C is best for relaxing muscles. But those with heart disease should ask their doctor first before taking a bath above 39°C. Lower the temperature a little to about 37°C, and you have the ideal cure for sleeplessness. Fifteen minutes in warm water before going to bed helps those who suffer from sleeplessness. Taking a bath in water whose temperature ranges between 35°C and 36°C helps calm you down when you are feeling nervous.

- ① 심장병 환자는 섭씨 39 도 이상이 좋다.
- ② 온도가 높을수록 치료 효과가 높아진다.
- ③ 근육을 푸는 데는 섭씨 35 도 정도가 알맞다.
- ④ 불면증에는 섭씨 37 도 정도가 좋다.
- ⑤ 신경과민에는 섭씨 38 도 정도가 알맞다.

위의 문제에서는 ②를 제외한 모든 선택지에 숫자가 들어있어서 수험자가 지문에서 숫자가 들어간 부분만 선택해서 읽음으로써 답을 쉽게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측정요소에서도 선택지의 질적인 문제가 내용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로 인하여 답이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⑧ 특정정보 파악

특정정보 파악 문제는 내용의 일치, 불일치를 묻는 세부내용 파악 문제와

달리 지문의 특정한 정보에 대해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예) 2001년 39번

39. 다음 글에서 Kathy 에 대한 필자의 감정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When I was nine, Kathy was in my class. She was always clean, smart, and popular. I went to school mostly to see her. Every morning I brushed my hair. Every night I washed the only clothes I had. In winter I often got sick because in the morning I had to wear them, wet or dry. Everybody has a Kathy, a symbol of everything you want. When I played the drums in high school and when I broke race records in college, it was for Kathy. Now when I hear a cheer from the audience after I sing, I wish Kathy could hear it, too.

- ① 회의 ② 질투 ③ 동정 ④ 사랑 ⑤ 미움

위의 문제는 선택지의 내용이 간단한 것임에도 모국어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 모국어와 목표언어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위의 보기처럼 간단한 내용도 모국어로 제시하는 것은 선택지의 질을 떨어뜨려 타당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지시문 및 선택지의 언어선택 문제에 있어서 목표언어로 제시할 것인가 모국어로 제시할 것인가는 중요한 시험방식 요소이다 (최인철, 1993). 수학능력시험의 외국어 영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사소통 기능의 향상이므로 지시문과 선택지의 언어는 모두 목표언어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3 수험자의 실제능력을 고려해보았을 때 모든 지시문과 선택지를 목표언어로 제시하면, 목표언어로 된 지시문과 선택지의 이해가 부족하여 외국어 능력이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타당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구인타당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현재 외국어 영역의 모든 지시문은 모국어로 되어 있으며 선택지는 목표언어와 모국어를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간단한 선택지는 모국어로 제시한다면 더 좋은 문제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고3 수험자의 언어능력을 잘 고려하여 지시문은 현재 처럼 모국어로 제시하고 선택지의 경우 간단한 것은 모두 목표언어로 제시하며 목표언어로 제시된 선택지의 비율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⑨ 글의 종류 파악

글의 종류 파악역시 첫 문장에 대부분 답이 나와 있으므로, 첫 부분만 읽고도 답을 선택하는 수험자의 요령으로 인하여 타당도가 떨어지는 문제이다.

예) 2001년 18번

18. 다음 글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I am not a mountaineer, but I love to hike and be outdoors. It was hot that day, so climbing the mountain was much more difficult than I had imagined. It took about six hours to reach the top. But the sweeping beautiful view made the hard climb worthwhile. That night we cooked out, and then shared a small cabin with other climbers. We awoke the next morning to a magical sunrise, which made me understand why Korea is often called "Land of the Morning Calm."

① 초청장 ② 안내문 ③ 논설문 ④ 소환장 ⑤ 기행문

이 문제에서는 첫 문장 "I am not a mountaineer, but I love to hike and be outdoors."만 읽어도 글의 종류가 기행문 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정요소를 위한 문제를 출제할 때는 글의 종류가 첫 문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⑩ 어조/태도/심경/분위기 유추

필자의 전반적인 어조나 태도, 심경, 글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제로 선택지가 거의 형용사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 측정요소 또한 글의 일부만 읽어 보아도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예) 2002년 39번

39. 다음 글이 주는 분위기로 가장 알맞은 것은?

Chichikov was returning home from the party on horseback. In the dead silence of midnight, he could even hear a watchdog barking from the opposite shore of the river. No signs of life occurred near him but the sound of insects. All the ghost stories that he had heard in the evening now returned to his memory. Approaching the tree in which many soldiers had been hanged, he thought he saw something white floating in the middle of the tree. The night grew darker and the mist began to spread around him.

- ① sad ② peaceful ③ **scary**
④ festive ⑤ romantic

이 문제는 글의 일부만 읽어 보아도 답을 선택할 수 있는 점이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더 심각한 문제점은 선택지의 질에 있다. 제시된 5개의 선택지는 긍정적인 분위기(peaceful, festive, romantic)와 부정적인 분위기(sad, scary)를 섞어놓아 수험자가 답을 더욱 쉽게 선택할 수 있

게 만들었다. 만약 이 문제에서 선택지를 모두 부정적인 분위기로 작성하였다면 좀 더 좋은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정요소를 위한 문제 개발은 태도나 심경 등을 드러내는 단서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선택지의 질을 높여 타당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수능 외국어 영역은 선택지의 내용이 질적으로 떨어져 타당도를 크게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문제의 오답지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용면에서 정답같이 느껴지는 매력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선다형 독해시험의 타당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선택지 내용의 질적 문제가 있다(최인철, 2000).

문제에는 항상 매력적인 오답이 있어야 한다. 매력적인 오답을 선택사항으로 만들어야 수험자의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어 영역은 매력적인 오답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문항수가 많아서 수험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으며, 수험자가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도 답안을 쉽게 고를 수가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선택지 제작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매력적인 오답의 비율을 높이고 선다형 문항의 선택답안 간에 관련성을 부여하여, 수험자의 외국어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⑪ 화자의 의도파악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구)

화자의 의도파악은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예) 2002년 22번

22. 밑줄 친 Where are we?의 의미로 말한 사람이 의도한 뜻과 동료가 이해한 뜻을 가장 잘 짝지은 것은?

Two violinists were playing a piece at Carnegie Hall before a large audience. In the middle of the piece, one of the two, allowing his mind to wander for a moment, lost his place. Desperately, he tried to listen to his partner while continuing to play. Finally, he had no choice but to lean toward his partner and whisper out of the corner of his mouth, "Where are we"? And his partner, continuing to play, calmly said, "In Carnegie Hall."

- | <u>말한 사람이 의도한 뜻</u> | ----- | <u>동료가 이해 한 뜻</u> |
|---------------------|-------|-------------------|
| ① 어디 연주해? | ----- | 어디로 가야해? |
| ② 어디 연주해? | ----- | 여기가 어디야? |
| ③ 어디로 가야해? | ----- | 어디 연주해? |
| ④ 어디로 가야해? | ----- | 여기가 어디야? |
| ⑤ 여기가 어디야? | ----- | 연주회장이 어디야? |

이러한 측정요소의 문제는 첫 문장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밑줄 친 문장 다음에 나오는 덧붙이는 말을 보면 쉽게 답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첫 문장을 통해 두 명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밑줄 다음의 덧붙이는 말 "In Carnegie Hall"을 통해 동료가 장소를 묻는 말로 착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정요소를 파악하는 문제 역시 내용의 일부분만을 보고도 답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내용 타당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⑫ 관련된 속담/격언/교훈 찾기

이 측정요소는 결국 필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글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으로, 대의파악 문제와 비슷한 측정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예) 2001년 20번

20. 다음 글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속담은?

In general, every achievement requires trial and error. As youth, we need not feel ashamed of making mistakes in trying to find or win our place in a social group. It is not easy to learn to fit into a group or to develop a personality that helps us to fit in. It is somewhat like learning to play a game like baseball or basketball. We can hardly expect to learn without making a good many mistakes in the process.

- ① Look before you leap. ② Like father, like son.
- ③ No news is good news. ④ Out of sight, out of mind.
- ⑤ **Rome was not built in a day.**

이 문제도 역시 대의파악과 마찬가지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글의 요지(main idea)가 나타나 있어서 답을 쉽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수험자가 답을 쉽게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7) 대화문 완성 (문어체->구어체)

이 유형은 문어체로 제시된 지시문을 대화문으로 바꾸는 유형으로 의사소통 능력과 대의파악 능력을 동시에 측정하고 있다.

예) 1996년 16번

16. 다음 (A)의 글을 (B)의 대화문으로 구성하였다. 빈 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A)

It was Jack's turn, but his roommate Arthur had to cook. The steaks were burned, so they went out for dinner. After dinner, Arthur wanted Jack to pay, but Jack said, playfully, that he wouldn't because Arthur was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But Arthur was running out of money, because he had bought an expensive birthday gift for Jack.

(B)

Jack : Now, pick up the bill, Arthur.
Arthur : Don't you think you have to pay?
Jack : What? You burned the steaks, didn't you?
Arthur : True, but I'm nearly broke, and I won't get paid soon.
Jack : That's your problem.
Arthur : _____

- ① I bought you a birthday gift, didn't I?
- ②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 ③ It was your turn to cook, though.
- ④ Can't you be a little kinder?
- ⑤ Well, I shouldn't have been so generous.

위 지문의 선택지 ②는 waiter가 주문을 받을 때 손님에게 물어보는 말로 전혀 다른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성이 전혀 없는 선택지를 제시하여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출제 시에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8) 인터뷰 완성

인터뷰의 질문을 선택하는 유형으로 2001년부터 새로 등장했으며, 총 3문제가 출제되었다. 이 유형은 지금까지 출제된 3문제 모두 처음부터 빈칸을 제시함으로써 수험자의 자연스러운 독해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

예) 2003년 27번

27. 다음은 인터뷰의 일부이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질문을 <보기>에서 골라 짝지은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Reporter: (A)

Mr. Lee: When I was growing up, there wasn't a lot to do in a small town. So I observed the people around me. I listened to their stories, and I saw universal truths in their simple lives. These have been the main subjects and themes of my work. I'm delighted to share all this with my readers.

Reporter: (B)

Mr. Lee: My mother loved the arts. She enjoyed playing the organ and writing poetry. When I was five, she gave me a notebook, and I poured out my fancies and my dreams onto the paper. I would read my mother what I had written. It amused her, and I felt proud. I still have that notebook.

- | |
|--|
| <p>a. When did you first find joy in writing?</p> <p>b. Where do your ideas come from?</p> <p>c. How do you define the writer's role today?</p> <p>d. How did music influence your attitude toward life?</p> |
|--|

(A) (B)

- ① a ----- b
- ② **b ----- a**
- ③ b ----- c
- ④ c ----- d
- ⑤ d ----- c

이 문제는 빈칸이 첫 문장부터 있어서 수험자의 자연스러운 독해과정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빈칸은 글의 후반부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안내문 - 장소 연결하기

안내문을 적절한 장소와 연결하는 유형으로 1997년도 단 한차례 출제 되었으며, 수험자의 상황판단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예) 1997년 37번

37.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그 안내문이 게시될 장소가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는 것은?

- (A) SORRY - ALL TABLES FULLY BOOKED ⇒ Library
 (B) LATE COMERS WILL BE ADMITTED ONLY DURING INTERMISSION
 ⇒ Concert Hall
 (C) ALL PRICES REDUCED THIS WEEK ⇒ Bank
 (D) PLEASE LOWER VOLUME FROM 10 PM ⇒ Dormitory
 (E) THANK YOU FOR NOT SMOKING ⇒ Hospital

- ① (A), (C) ② (B), (D) ③ (C), (E)
 ④ (A), (D) ⑤ (B), (E)

이러한 유형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며, 일상생활과 관련이 높다. 생활에 사용되는 영어대화나 담화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수능의 평가 목표에도 잘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유형의 평가 출제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10) 구어체 문장 완성

이 문제는 실제로는 말하기 평가이며, 말하기 평가를 지문으로 제시하여 평가한다는 점에서 내용 타당도가 떨어지는 문제이다. 이러한 유형은 초기에 출제되었다가 97년 이후에는 새롭게 도입된 말하기평가로 인하여 이 유형이 사라졌다. 이러한 유형도 역시 빈칸 채우기 유형과 같은 맥락으로 선택지의 선택에 따라 타당도가 달라지므로 선택지의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 1996년 11번

11. 다음 빈 칸에 적절하지 않는 것은?

Customer : Excuse me.

Clerk : Yes. What can I do for you?

Customer : I have some film to be developed.

Clerk : Okay, _____ .

- ① They'll be ready tomorrow morning.
- ② May I have your name, please?
- ③ How soon do you want them?
- ④ **Let's pose for a picture, please.**
- ⑤ You can pick them up at 2 : 00.

윗 글의 선택지 중 ④는 나머지 선택지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수험자가 지문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다고 하더라도 답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11) 요약문 완성

이 문제는 Q&A 유형의 주제파악, 제목파악 측정요소와 비슷한 문제로 수험자의 주제파악능력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유형도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통해 주제만 파악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이므로 타당도에 문제가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예) 2002년 43번

43.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빈칸 (A)와 (B)에 가장 적절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

Research was done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taste between bread with standard and reduced salt content. Three types of bread were prepared, the same in all respects except for salt content. One loaf

contained the usual amount, one loaf 10% less, and one 20% less. Sixty people were asked if they could tell any differences in taste. They had to guess which loaf contained the usual amount of salt, 10 % less, or 20% less. The result showed that only 30% of the guesses were correct, which is not different from what would be expected by chance.

⇒ The (A) of bread is not necessarily (B) the salt content in the bread.

- | (A) | (B) |
|---------------------|-----------------------|
| ① price ---- | affected by |
| ② price ---- | related to |
| ③ sales ---- | as important as |
| ④ taste ---- | dependent upon |
| ⑤ taste ---- | more important than |

이 글은 첫 번째와 마지막 문장만을 봐도 실험결과가 빵의 맛과 소금의 양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수험자의 전략이 적용되는 문제이다.

(12) 복합문 이해유형

서로 다른 두 개의 글을 제시하여 공통된 제목을 찾는 능력을 측정하는 유형으로 1995년 단 한차례 출제되었으며, Q&A 유형 중 제목 찾기 유형과 마찬가지로 지문의 일부분만 읽고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이므로 내용 타당도가 낮은 문제이다.

예) 1995년 50번

다음 (A), (B) 두 글의 공통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점]

(A)

In some Asian countries water is often taken from a well using a hand pump. The water is usually clean and safe to drink. In some villages people use earthen jars that help keep the water cool. On the other hand, the water for the fields is taken from a number of small ponds or streams. This water is carried into the fields through a long waterway.

(B)

In some villages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people obtain their water from ponds nearby. The water is not very clean but it is all they have. Women and children fill the buckets or cans with water and carry them back to their homes. In some countries, they make the water a little safer by passing it through a water filter.

- ① Development of Water Pumps
- ② **Methods of Getting Water**
- ③ Problems of Water Pollution
- ④ Uses of Water Filter
- ⑤ Technology of Cleaning Water

위의 문제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찾아볼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수능은 본문에 쓰였던 단어를 선택지에 그대로 사용하여 지나치게 문제를 쉽게 만들어 내용타당도를 쉽게 만들어 떨어뜨리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얻다’라는 동사를 질문과 선택지에서 각각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 지문 (A)에서는 ‘take’, 지문 (B)에서는 ‘obtain’, 선택지에서는 ‘get’이라는 동사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 비록 이 유형이 지문의 일부분만 읽고도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내용 타당도는 떨어지지만, 지문과 선택지에서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 했다는 점에서는 내용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3) 독해 소재(topics) 분석

언어능력 시험에서 배경지식은 수험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TOEFL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분야의 소재가 출제되며 수험자가 그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갖고 있을 경우 상당히 유리하며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배경지식의 변수가 수험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재선정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최인철, 1993).

수능 외국어 영역 독해지문에서 지난 11년간의 소재를 분석해 보면 <표 10>과 같다. 분석 결과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에 대한 소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특정 분야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수험자를 크게 인문 계열과 자연계열로 분리하였을 경우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에 대한 소재가 많으므로 인문계열에게 다소 유리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재를 선정할 때에는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에 높은 비중을 뒀 한정된 영역에 치중하기 보다는 자연과학에 대한 소재의 비율을 높여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수능의 성격 중에는 ‘실생활 에 사용되는 영어

대화나 담화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사항이 있다. 또한 교육부가 편찬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에서는 영어 I 읽기 활동 자료로 학문적 목적을 위한 글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기기의 사용 설명서, 시각표, 양식, 표, 도표, 차트, 그래프, 지도 등 다양한 형태의 글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어 II 교과에서는 신문이나 잡지 등을 읽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통 영어 교과서(두산, 천재교육, 시사영어사, 지학사, 교학사)에서는 편지, 이메일, 인터뷰, 요리법, 메뉴, 지도, 도표, 지하철 노선도, 열차 시각표, 일정표, 차트, 일기, 메모, 기사, 광고, 카드, 초대장, 잡지, 안내문 등의 흥미롭고 다양한 실용문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실용문의 경우는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기회가 많고 수능시험의 성격 및 제7차 교육과정에 그 중요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문제유형을 개발하고 문제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내문이나 광고문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실용문에서 수험자가 필요한 의미를 추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용문의 문제 출제가 필요하다.

<표 10> 독해 소재(topics) 분석

소재		년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합계	비율
		94 1차	94 2차												
인문 과학	문학		3	2			1	1	2	1	3	1	2	16	3.76%
	철학, 교훈		2	3						5	3	6	4	23	5.40%
	심리		4	5		3	1	3	1	4	2	4	2	29	6.81%
	교육	4	6	5	7	3	6	8	4	1	1	1		47	10.80%
	역사	1	1			2				3	2	1		10	2.35%
	예술						2	1	1				3	9	1.64%
	전기			1				1	1				1	4	0.94%
	문화	2		1	1	2	1	1			1	1		10	2.35%
	유머	2	2	2	1		4	1	1		1		1	15	3.52%
	언론	1								1		1		3	0.70%
	언어	1			2	1				1		1		6	1.41%
	인간의 특성					1		2			1			4	0.94%
	경험	3			1				1					5	1.17%
독서	2					1	1		1				5	1.17%	
소계														186	42.96%
사회 과학	정치			1							1			2	0.47%
	경제				1	2	3	1			1			8	1.88%
	사업		1		2				2	1		2	1	9	2.11%
	정부, 법			1	2	1								4	0.94%
	자선, 봉사			1			2					1		4	0.94%
	산업화				2				1					3	0.70%
	산업 (영화/관광 등)		1	1					1	1				4	0.94%
	기관, 제도				1	1			2	1				5	1.17%
	직업, 업무		1			1	2	2	1		2			9	2.11%
	편견						2		1					3	0.70%
	차별	1				2								3	0.70%
	현대사회				1		2			2				5	1.17%
	일상생활	10	8	5	4	2	3	4	8	2	1	3	3	53	12.44%
	관계			1		3		3	1	1			3	12	2.82%
	가족	1			1							1	2	5	1.17%
	건강			2	1					1	1			5	1.17%
농업			1					1					2	0.47%	
여가활동	1	1		1						3			6	1.41%	
쇼핑			1							1		1	3	0.70%	
안전	1				1		1		1	1			5	1.17%	
소계														150	35.21%

소재		년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합 계	비율
		94 1차	94 2차												
자연 과학	과학	7	3	1	3		4	2	2		3		6	31	7.28%
	환경	1	3	2	2	3	1	4	2	1	1			20	4.69%
	의학/건강		2											2	0.47%
	음식				1	1								2	0.47%
	기술/공학				1	3			2	1				1	8
소계														63	14.79%
실용 문	사적인 편지			1								1	1	3	0.70%
	공적인 편지	1		1										2	0.47%
	도표			1	1	1	1	1	1	1	1	1	1	10	2.35%
	인터뷰									1	1	1		3	0.70%
	안내문					2				1		1		4	0.94%
	광고문	1	2	1	2		1							1	8
소계														30	7.04%
합계		40	40	40	38	36	37	36	36	32	31	30	30	426	100.00 %

4. 어휘분석

수능에서 어휘는 사전뜻풀이 유형의 1가지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으며, 단어 나 속어가 다양한 의미로 쓰일 때 주로 출제된다.

예) 2000년 33번

33. 아래에 주어진 사전 뜻풀이 가운데, 밑줄 친 wrapped up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rapped up ten days of excitement last Saturday. The closing event of the festival was highlighted by the appearance of all the prize winners.

wrap up v. 1. to cover something : *I wrapped up my present.* 2. to finish something successfully: *They wrapped up their meeting.* 3. to hide something by using difficult words : Don't wrap up the question in big words. 4. to put warm clothes on someone : *Please wrap up my baby warm.* 5. to interest someone completely : *The kids were wrapped up in my story.*

-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현재 수능에서 수험자의 어휘를 측정하는 문제 유형은 단 1가지이므로 다양한 유형의 개발이 시급하다.

5. 문법분석

수능은 문법의 용법에 관련된 지식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보다는 영어를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의 유창성을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법의 문항 수가 적다. 문법의 측정은 의사소통의 기능을 위한 문법이 되어야 하므로 지나치게 문법만을 위한 문법시험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구어체와 문어체의 격식(formality)은 다르므로 구어체와 문어체는 따로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인철, 1993)

지난 11년간 출제된 문법항목을 분석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문법항목 분석

년도	문법항목	문항 수
94 1차	수동태, should + have + 과거완료	2
94 2차	수동태/능동태, 병렬구조	2
95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병렬구조	2
96	수의 일치, 간접의문문의 어순, 과거완료	2
97	insist + 직설법/가정법	1
98	수동태/능동태	1
99	should + have +과거완료	1
00	stop + to 부정사/동명사	1
01	간접의문문의 어순	1
02	대명사, 재귀대명사, 주어가 될 수 있는 것, 현재완료	2
03	관계대명사, 명사/동명사, most/almost, 병렬구조	2
04	수의 일치, 대명사, 가정법, 병렬구조	2
합계		19

1) 문법유형

문법의 문제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각각의 유형에 대한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완성형

완성형은 적절한 단어를 골라 완벽한 문장으로 완성하는 유형이다.

예) 2003년 30번

3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골라 짝지은 것은?

The jobs that (A)most / almost companies are doing with information today would have been impossible several years ago. At that time, getting rich information was very expensive, and the tools for (B)analysis / analyzing it weren't even available until the early 1990s. But now the tools of the digital age give us a way to easily get, share, and (C)act / acting on information

in new ways.

- | (A) | | (B) | | (C) |
|---------------|-------|------------------|-------|------------|
| ① most | ----- | analysis | ----- | acting |
| ② almost | ----- | analyzing | ----- | act |
| ③ most | ----- | analyzing | ----- | act |
| ④ almost | ----- | analysis | ----- | acting |
| ⑤ most | ----- | analysis | ----- | act |

(2) 세부적 오류 지적형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 중 어색한 곳을 찾는 문제는 타당도에 문제가 있다. 암시적 지식(implicit knowledge)을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암시적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자에게 어색한 부분을 찾도록 해야 한다.

예) 2000년 44번

44.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As the zoo, Simba the lion was very sick. The animal doctor came and tried giving him some red meat ①full of medicine. Poor Simba did not even raise his head. Finally, Simba ②stopped to breathe. The doctor said, ③with tears in his eyes, "I regret to tell you that Simba is dead." The little children ④were very shocked to hear it. "I feel like I've lost an old friend. I can remember ⑤reporting Simba's birth," said a reporter.

(3) 포괄적 오류 지적형

포괄적 오류 지적형은 수험자의 암시적 지식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세부적 오류 지적형보다 내용 타당도가 높다.

예) 1997년 20번

20.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어법상 적절하지 않는 문장은?

①One day a truck hit a pedestrian on the street. ②The driver argued that the careless pedestrian was to blame for the accident. ③It was difficult to determine exactly where the accident had taken place. ④**Many witnesses insisted that the accident should take place on the crosswalk.** ⑤So, the driver was held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4) 선택형

선택형은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친 것을 선택하는 유형이다.

예) 1996년 12번

12.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가장 잘 고친 것은? [0.6점]

Robert was going steady with Susan and was thinking of marrying her. He wanted to know what kinds of girls her sisters were, what her father was like, and how long did her mother die.

- ① 고칠 필요 없음
- ② how long her mother has died
- ③ how long was her mother dead
- ④ how long ago did her mother die

⑤ how long her mother had been dead

이처럼 수능의 문법은 모든 문제가 문어체 문법을 측정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의사소통 기능을 위한 문법 측정을 위해서는 구어체 문법의 측정이 필요하며, 수험자의 암시적 문법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세부적 오류 지적형’의 문제 유형을 지양하고 ‘포괄적 오류 지적형’의 문제 유형으로 출제해야 한다.

6. 난이도 분석

지나치게 어렵거나 쉬운 시험은 시험의 타당도에 부정적인 영향(최인철, 1993)을 미친다. 따라서 난이도의 분석은 타당도 재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독성(Readability)은 흔히 문장의 이해도(comprehensibility)로 쓰이며, 문장의 난이도 수준을 가리키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독해 용이도(조석주, 1984; Alderson, 2000)를 뜻한다.

수능의 난이도 분석은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Flesch 공식(Flesch, 1948)과 Fog 공식(Gunning, 1968)을 이용하였다. 각각의 공식에 대한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Flesch Reading Formula

$RES(=Reading\ Ease\ Score)=20\ 6.835-(0.846*SYLL)-(1.015*SL)$

SYLL=number of syllables

SL=Sentence Length

Gunning Fog Index

Reading Grade Level= $0.4(SL + \%PSW)$

SL=Sentence Length

%PSW= Percentage of polysyllable words

1) 구어체 난이도 분석

Words/Item은 1문항 당 단어 수로 숫자가 높을수록 대본의 길이는 길어진 다. 대본의 길이는 1995년(43.25), 1998년(64.12)로 약간 주춤하고 2000년 (66.41)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지난 11년간 전체적으로 약간씩 증가하여 2004년에(99.94) 최고의 단어수를 기록했다. 이는 1994년(44.75)와 비교하여 약 2.23배가 늘어난 것이다.

Ave.word Length는 한 단어 당 글자수로 지난 11년간 큰 변화가 없었으며, Sentences(문항 수)는 1997년부터 문항수가 17문제로 늘어남에 따라 문장수도 증가하였으며, 1999년, 2001년, 2002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Sent.Length는 문장의 길이를 뜻하는 것으로 1997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가 2004년에는 최고로 길어졌다.

다음으로 난이도의 가장 큰 관건인 Flesch Reading과 Fog index를 통해 이 독성을 살펴보겠다. Flesch reading의 수치는 숫자가 높을수록 쉬워지며, Fog index는 학년 수준을 가리키는 것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쉽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수치가 가장 높은 1994년 1차(98)가 가장 쉽다고 할 수 있으며, 1994년 2차(89)가 가장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표 12> 구어체 난이도 분석

항목	년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94 1차	94 2차										
Words	358	373	346	638	1,099	1,090	1,439	1,129	1,285	1,482	1,648	1,699
Item	8	8	8	10	17	17	17	17	17	17	17	17
Words/Item	44.75	46.63	43.25	63.80	64.65	64.12	84.65	66.41	75.59	87.18	96.94	99.94
Ave.Word Length	4.07	4.01	3.86	4	3.95	4.12	3.72	4.02	3.79	3.69	3.89	4.01
Sentences	77	75	62	101	168	179	216	193	312	308	248	250
Sent. Length	4.3	4.5	5.1	5.3	5.4	5.1	5.9	5.2	4.3	5	5.8	6
Flesch Reading	98	89	93	93	95	90	94	93	94	94	96	92
Fog Index	4	5	5	5	4	4	5	4	4	4	4	5

2) 문어체 난이도 분석

Words/Item(문항 당 단어 수)은 1994년 1차에 78.90으로 시작하여 1996년, 1997년, 1999년, 2002년, 2003년, 2004년에 각각 증가하였으며, 2004년에 가장 많은 단어수를 기록했다. 이는 1994년 1차와 비교해보면 약 1.37배가 늘어났다.

Ave.word Length(한 단어 당 글자 수)는 구어체와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없으며, Sentences(문장 수)는 1997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그 후에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Sent.Length(문장의 길이)는 증가와 반복을 반복하다가 2002년(13.5)에 최고로 길어졌다.

Flesch Reading과 Fog Index를 통해 이독성을 살펴보면, Flesch Reading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2003년(76)이 가장 쉬웠으며, 2004년(68)이 가장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구어체와 문어체의 난이도를 비교해보겠다. 먼저 구어체는 Flesch Reading의 범위가 89~98이며, 문어체는 68~76이다. 이로써 문어체의 수치가 더 낮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문어체가 구어체보다 극명하게 어렵게 나타남으로써 언어의 난이도 차이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og Index에서도 마찬가지로 4~5에 머물러 있는 구어체에 비해, 8~10에 분포되어 있는 문어체의 난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내용 타당도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표 13> 문어체 난이도 분석

년도	94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항목	1차	2차										
Words	3,156	2,930	2,950	3,416	3,369	3,278	3,421	3,235	2,866	3,115	3,077	3,239
Item	40	40	40	38	36	37	36	36	32	31	30	30
Words/Item	78.90	73.25	73.75	89.89	93.58	88.59	95.03	89.86	89.56	100.48	102.57	107.97
Ave. Word Length	4.43	4.5	4.38	4.56	4.43	4.49	4.48	4.4	4.49	4.51	4.42	4.63
Sentences	363	316	327	325	406	307	321	270	228	230	267	262
Sent. Length	8.6	9.2	9	10.5	8.2	10.6	10.6	11.9	12.5	13.5	11.5	12.3
Flesch Reading	73	72	75	71	74	72	73	75	71	70	76	68
Fog Index	8	9	8	9	8	9	9	9	9	10	9	10

V. 수능의 긍정적 평가

수능에는 내용타당도 문제가 심각한 문항도 있었으나,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문항도 있었다.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출제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유형별 문항제시

동일한 시험유형별로 문항을 연속해서 제시하면 수험자들은 연속해서 제시된 유형의 문제를 풀 때 독해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문제의 세부내용을 일일이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진정한 독해과정에 타당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최인철, 1993).

예) 2004년 [22~26]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003년 [35~36]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002년 [37~38]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000년 [45~46]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 통합형 문항제시

예전에는 언어의 네 가지 기능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유형이 각각 다른 영역에서 다루어져왔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기능을 통합(integration)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통합 과정으로 학습자는 더 강한 동기를 부여받으며, 언어의 4가지 기능에 대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Brown, 2001). 이러한 통합형 문항은 학습자에게 상당히 유의미한 학습이 될 수 있다.

수능에서는 미비하지만 읽기와 말하기 능력을 종합하여 평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독해지문을 제시한 후 그 독해지문을 대화문으로 바꾸는 것이며, 수험자가 대화문으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통합형 문항이 제시된 사례는 <표 14>와 같다.

<표 14> 통합형 문항

	94 1차	94 2차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합계
읽기 + 말하기 (번호)	11~12	12~13	13	16									
합계	2	2	1	1									6

예) 1995년 13번

13. (A)의 글을 (B)의 대화문으로 구성하였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 점]

(A)

Mary goes into a clothing store. She finds a dress she really likes, and she wants to buy it. However, she doesn't have enough money.

(B)

Clerk : May I help you?
 Mary : Sure. I'd like to see some dresses.
 Clerk : This way, please.
 Mary : Oh, this dress is beautiful! I'll take it. How much is it?
 Clerk : Only \$50. It's on sale now.
 Mary : _____

- ① Wow, that's a lot of money.
- ② Well, I'll think about it.
- ③ I love it, but I can't.
- ④ Oh, I'm sorry.
- ⑤ It's up to you.

이 문제는 읽기와 말하기가 통합된 것으로 글 (A)에서는 수험자의 독해능력을 글 (B)에서는 수험자의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형 문제는 몇 문제 되지 않았지만, 그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수험자가 언어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점진적으로 함양시킬 수 있다. 앞으로는 통합형 문항의 수를 점차적으로 늘려서 언어의 4 기능이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읽기 지문인 (A)의 글을 읽지 않고 (B)만 읽어 보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므로, 답이 쉽게 도출되지 않도록 문제와 선택지를 작성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미시적 청해능력(micro-listening)과 거시적 청해능력(macro-listening), 상향식(bottom-up)과 하향식(top-down) 방식의 조화

흔히 미시적 청해능력(micro-listening)은 상향식(bottom-up) 독해과정에 비유되며, 거시적 청해능력(macro-listening)은 하향식(bottom-up)과 상향식(top-down)의 혼합적인 독해과정에 비유된다. 수능 외국어 영역의 듣기, 말하기 평가에서는 미시적 청해능력과 거시적 청해능력을 조화롭게 평가하여 수험자의 기초적인 청해 능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파악을 위한 청해 능력도 평가하고 있다. 또한 독해능력 평가에 있어서는 수험자가 상향식과 하향식

독해 방식을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혼합적인 독해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분석하였다. 듣기·말하기 영역에서는 속도, 측정요소, 기능(functions), 상황(situations), 난이도 분석을 하였으며, 독해(읽기, 쓰기) 영역에서는 유형(tasks), 측정요소(sub-skills), 소재(topics), 난이도 분석을 하였다. 어휘 영역에서는 유형, 난이도 분석을 하였으며, 문법 영역에서는 문법항목, 유형, 난이도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수능 외국어 영역의 평가목표는 대학 수학에 필요한 영어 사용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의 측정인데 반해, 수능은 이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내용 타당도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먼저 듣기·말하기 평가에서는 지나치게 느린 속도, 낮은 문제비율, 말하기의 간접평가가 내용 타당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수능의 속도는 원어민의 말하기 속도에 가깝게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점차적으로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듣기가 전체 문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점도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TOEIC의 듣기가 전체 200문항 중 100문항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낮은 비율이다. 듣기는 언어의 4대 영역(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이며, 듣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말하기가 이루어지므로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듣기문항의 비율을 늘여서 총 문항에서 50%의 비율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간접평가로 이루어진 말하기 평가는 수험자의 진정한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말하기 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독해 평가에서는 내용타당도가 낮은 유형과 측정요소, 한정된 소재, 선택지의 질적인 문제, 선택지의 언어문제가 심각하였다. 수능은 내용 타당도가 떨어지는 문제유형과 측정요소로 인해 수험자가 여러 가지 수험전략을 통해 문

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여 문제의 변별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적격자 선발을 위해 고등사고력을 측정하는 수능의 본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다. 소재(topics)는 지나치게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에 치우쳐져 있으므로, 앞으로는 수험자가 다양한 소재를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능의 목표가 실생활에 사용되는 영어대화나 담화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임에 반해 전체비율 중 실용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7.04%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수능은 메모, 발표문, 양식, 지원서, 요리법, 청구서, 식단표, 일정표, 초대장등의 여러 종류의 실용문의 비율을 늘여야 할 것이다. 선택지의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매력적인 오답을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선택지의 언어 문제에 있어서는 간단한 선택지임에도 모국어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선택지의 질을 향상시키고 간단한 선택지는 목표언어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휘력 평가에서는 현재 ‘사전 뜻풀이 유형’으로 고정되어 있는 문제 유형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문법 평가에 있어서는 의사소통 기능을 위한 문법 평가를 위하여 구어체 문법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하며, 내용 타당도가 낮은 ‘세부적 오류 지적형’ 유형을 지양하고 ‘포괄적 오류 지적형’에 대한 문법 출제를 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난이도 면에서는 듣기·말하기 영역과 읽기·쓰기·어휘·문법 영역 모두에서 내용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구어체로 이루어진 듣기·말하기 영역에서는 거의 문어체로 이루어진 읽기·쓰기·어휘·문법 영역 보다 극명하게 쉽게 나타남으로써, 구어체와 문어체의 난이도 차이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난이도를 제외하고는 내용 타당도가 매우 낮은 부정적인 면에 반하여 수능에도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첫 번째는 동일한 시험유형이 연

속해서 제시된 점이다. 이러한 출제방식은 진정한 독해과정에 타당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통합형 문항의 제시이다. 수능의 통합형 문항은 읽기와 말하기 영역이 통합된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이러한 통합형 문항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미시적 청해능력과 거시적 청해능력, 상향식과 하향식 독해방식이 혼합적으로 사용된 점이다.

앞으로의 수능 외국어 영역은 부정적인 측면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여 수험자의 시험전략이 통하지 않도록 하여 내용타당도가 높은 시험문제와 다양한 시험유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긍정적인 측면은 좀 더 부각시키고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시험문제를 개발한다면 수능의 내용타당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동기. (2002). 통합적 사고능력 함양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평가문항 개발.
- 고영목. (2003). *디딤돌 2005수능 시리즈 외국어 영역 듣기 유형편*. 서울: 디딤돌.
- 교육부. (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외국어- 영어)*.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국립교육평가원. (1994). 9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문제 분석연구.
- 국립교육평가원. (1995). 9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문제 분석연구.
- 김상길. (1996). 1994~9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 결과 분석비교. 국립교육평가원.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2).
- 김성곤 외. (2004). *HIGH SCHOOL ENGLISH*. 서울: (주)두산.
- 김준영. (2004). *수능비법전수 passing code*. 서울: 동부사.
- 링구아 포럼 리서치 센터. *TOEFL VOCA 2004*. 2002 링구아 포럼.
- 배두분 외. (2004). *HIGH SCHOOL ENGLISH*. 서울: (주)교학사.
- 성태제. (2002). *타당도와 신뢰도 (개정판)*. 서울: 학지사.
- 신정현 외. (2004). *HIGH SCHOOL ENGLISH*. 서울: (주)시사영어사.
- 이맹성 외. (2002). *HIGH SCHOOL ENGLISH*. 서울: (주)지학사.
- 이병민 외. (2004). *HIGH SCHOOL ENGLISH*. 서울: (주)천재.
- 이병호 외. (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외국어(영어)*.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이보길 외. (2004). *파사쥬 외국어 영역 듣기·말하기 유형편*. 서울: 대한 교과서.
- 이산호. (1998). 대학수학능력시험(영어)의 문항 분석 연구.

- 이은경. (1995). *고등학교 영어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 이찬승. (2004). *능률 외국어영역 단기특강 코스 얹다 - 유형편*. 서울: 능률 영어사.
- 이호재. (2001).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어) 영역 듣기평가의 의미와 영어교육에 대한 양향분석*.
- 이형 외. (2003). *EBS 수능 출제 유형분석*. 한국교육방송공사.
- 전병만 외. (1995).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출제 방향 및 방법의 개선 연구*.
- 전병만. (2002). *외국어(영어) 영역의 주요국 대학입학시험 문제비교 연구*.
- 정길정. (2003). *대입 수능 영어독해평가 문제의 담화구조 유형분석 연구*. *교육과정 평가연구*, 6(1), 273-292.
- 정호영. (1998). *성취시험으로서의 수학능력시험 - 외국어 영역을 중심으로*.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3(1), 429-441.
- 조석주. (1984). *영어 READIBILITY의 測定分析*.
- 차광순. (1995). *영어과 교육과정에 부합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방향*.
- 최인철. (1993).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개발 모델*. *Language Research*, 29(3), 383~426.
- 최인철. (2002). *실용영어어법 (개정판)*. 서울: (주) 현대영어사.
- 최인철 외. (2004). *언어 테스트의 설계와 개발*. 서울: 범문사.
- 최준. (1997).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의 청해시험 유형 및 발음속도가 수험결과에 미치는 영향*.
- 허준 외. (2004).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에 관하여: 영어교사들과 대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Foreign Language Education*, 11(3), 2004년 가을.
- 황우연. (2004). *외국어영역 종합편*. 서울: 학력평가원.

- Abrams, K. S. (1986). *Communication at work: Listening speaking writing and read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ternational Editions.
- Alderson, J. C. (2000). *Assessing Read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rthur, Hughes. (2003). *Testing for language teach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chman, Lyle F. (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Oxford university Press.
- Brown, H. Douglas. (2001). *Teaching by Principles*. Second Edition. Longman: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 Canale, M., & Swain, M.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1), 1-47.
- Dunkel, P. (1986). Developing listening fluency in L2: Theoretical principles and pedagogical considerations. *Modern Language Journal*, 70, 99-106.
- Ellis, R. (2003). *Task-base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riffiths, R. (1990). Speech rate and NNS comprehension: A preliminary study in time-benefit analysis. *Language Learning*, 40, 311-336.
- Gronlund, N.E. & Rinn, R.L. (1990). *Mearsurement and psychological choices and work environment*. (2nd ed.) Englewood Cliffs, NJ:Prentice-Hall.
- Krashen, S. (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Pergamon.

Madsen, Harold. 1983. *Techniques in Test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L. (1993). Research update on teaching L2 listening. *System*, 21, 205-211.

Rivers, Wilga. (1980).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MA: Harvard University Press.

Abstract

An analysis of content validity of English test
i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SAT).

Kwak Young Mi.

Dept. of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ent validity of English tests i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SAT) from 1994 to 2004 and suggest new approaches in the future.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f conversation speeds, sub-skills, functions, situations, readability on listening and speaking tests. It is conducted to analyze tasks, sub-skills, topics, and readability in the reading and writing tests. An analysis of vocabulary includes tasks and readability, and for grammar, includes items, tasks, and readabili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low conversation speeds, the small number of questions in comparison with reading, and an indirect test in speaking were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content validity in listening and speaking tests. Second, tasks and sub-skills which have low content validity, the quality of choices, the language of choices which is written in the mother language even though they were simple, and limited topics decreased the content validity in reading and writing tests. Third, when

there is only one task, finding meaning in a dictionary, helps to build strategies for test takers in vocabulary tests. Fourth, grammar tests did not focus on communication skill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choices of good quality, have a variety of topics covering natural science and practical passages, tasks and sub-skills which have high content validit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total number of listening questions used in tests, conversation speeds, and develop new testing methods for speaking tests.